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4년 창간호

창간호를 내며		
4	‘생명의 소리’ 전하는 정론지	차경애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

창간호 특집 대담		
8	생명위기의 시대,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	김애영 외

생명위기와 이 시대 우리의 삶

총론 생명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42	생명위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기독교여성들의 실천	최만자

특집1 흔들리는 가족공동체		
55	기획되어가는 가족, 재구성되어가는 가족, 가족공동체는 어디로?	조주은
66	가족: 신화와 신앙 사이	구미정

특집2 여성의 몸은 안전한가?

77	‘너의 외모를 개조하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여성의 몸	권수현
86	안전담론을 넘어 성폭력에 맞서기	백미순
94	의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김명희

특집3 포스트 후쿠시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03	시대의 징표와 상상력	박경미
115	방사능 오염과 시민 감시	김혜정

시대와 함께 삶과 함께

YWCA운동의 과거와 현재		
130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본 한국YWCA운동	유성희

YWCA 운동 실천 현장		
146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지다	명진숙

156	창간호 발행 후기	김기동
-----	-----------	-----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2014년 창간호

발행일 2014년 4월 20일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처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전화 02-774-9702~4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기동
 편집장 이윤숙
 편집 박은실, 명진숙, 이주영, 정서연
 편집디자인 안그래픽스 미디어사업부(02-763-2303)
 인쇄 북팩토리
 ISSN 2289-0254
 정가 12,000원

‘생명의 소리’ 전하는 정론지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여·세』는 한국YWCA의 목적 즉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기독교여성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찾는 한국YWCA 정론지입니다.

‘여’와 ‘세’ 글자 사이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살리는 정의, 평화, 생명 세상’,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여성들의 세력’,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여세!’ 등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창조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YWCA는 올해로 창립 9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와 역사를 함께 한 한국YWCA는 우리 사회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가 극도에 다다르고 곳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생명 파괴 현장들을 보며 한국YWCA 여성들이 생명 감수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한국YWCA는 9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

루어지는 사회를 꿈꾸며 일해 왔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불의와 부조리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의 정의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가 없는 정의는 사람과 사회에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태도이자 기본 가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YWCA 운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며,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식량위기, 화석연료 고갈, 빈곤, 전쟁과 테러, 핵으로 인한 위협 등 생명살림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3년 전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기운이 땅과 바다를 물들였고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본정부는 핵발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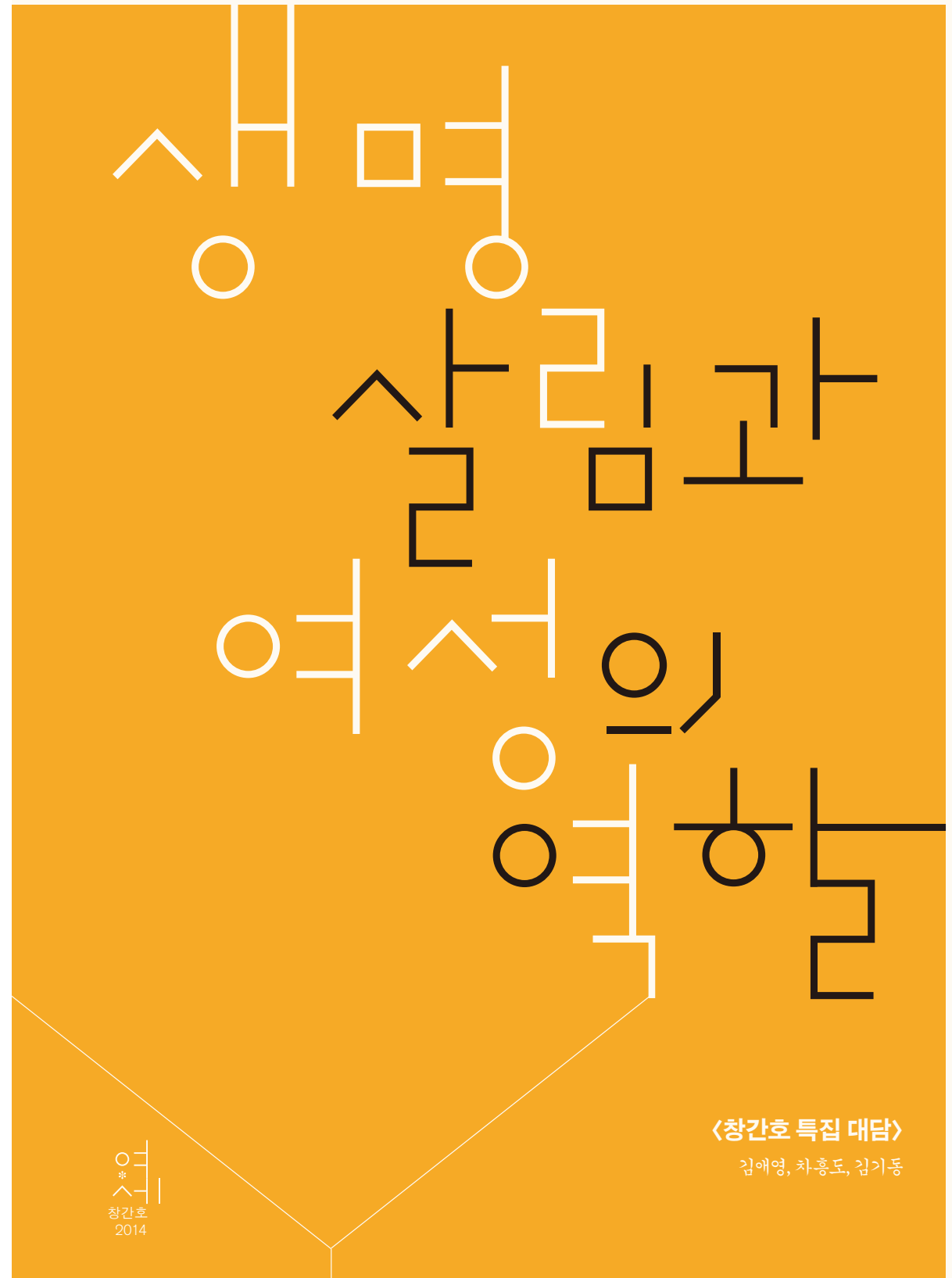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 직접적으로 우리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가 탈핵으로 방향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은 핵폭발 재앙을 불러일으킬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입니다. 한국YWCA는 ‘기독교 신앙과 핵은 양립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핵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세』창간호에서는 이러한 ‘생명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봅니다. 핵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족, 여성의 몸 등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생명위기의 징후를 살피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YWCA 100주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다짐을 위해 YWCA

여성운동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피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 농촌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해 가족법개정 운동,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여성근로자를 위한 활동, 청년·청소년 운동, 결혼이주여성과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활동을 해온 한국YWCA는 이 시대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상처 입은 생명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론지 『여·세』가 다양한 생명의 소리를 진중하고도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위기의 시대,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

대담자 김애영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서 여성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통일운동, 여성운동, 생명운동과 관련된 여러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차흥도

아이건강국민연대 상임대표, 생명참고·지역순환사회 전국협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기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대담 진행자), 여성신학자

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국장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생명평화위원회 부장

김기동 오늘 이렇게 만나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YWCA(이하 Y)가 2년 전부터 애써왔던 정론지를 드디어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세인데, ‘여’하고 ‘세’ 사이에 점이 있습니다. ‘여’는 여성, ‘세’는 세상의 줄임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정론지의 발간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만든다’, ‘살린다’, 즉 ‘여성이 만드는 세상’, ‘여성이 살리는 세상’의 의미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Y가 많은 회원을 가진 여성단체라는 점에서 또 ‘여성이 세력화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요.

차흥도

미처 점을 못 봤습니다. 여세라고 해서 ‘아, 세상을 연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기동

‘세상을 연다’는 뜻도 있고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여하튼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Y가 추구하는 목표를 함축적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김애영

YWCA가 『여·세』라는 정론지를 창간한다니 축하드립니다. 우선 ‘정론지’를 발간한다는 의미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론지의 이름을 ‘여·세’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안에 많은 뜻을 담고자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론지를 표방하는 Y의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인 Y의 정론지 창간을 앞두고 이런 특집 대담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론지 『여·세』 창간호의 각 주제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생명위기 시대와 이의 극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

Y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Y의 목적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질서의 보전’이라 함은 한마디로 생명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모두가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문제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흥도 완전히 JPIC¹네요.

김기동 네 맞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3개 과제를 Y 목적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야 정의와 평화의 문제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창간호에서 우선 생명의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애영 그런데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동감을 주고 있고, 생명문화, 생명신학이라는 말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상 그러한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을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모두가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문제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핵심과 본질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됨으로써 충돌할 수 있어요. 농민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1. 1990년 세계교회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세계대회에서 정의(Justice), 평화(Peace), 창조질서의 보전(Integrity of Creation)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면서 이후 기독교 신앙에 있어 생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고 제각각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이기적인 양태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모순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따라서 총체적인 또 유기적인 관계에서부터 생명 추구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저도 동감합니다. 생명의 의미를 정의하다보면 끝이 없지요. 사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몸에 병이 났을 때 ‘아, 내가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구나’ 라고 비로소 느끼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생명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우선 그 진단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애영 오늘도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동반자살을 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어요. 현재 우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입시경쟁을 비롯한 무수한 사회경쟁에 내몰린 청소년, 젊은이들, 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기륭전자 등등의 노동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극단적 사회 양극화의 문제로 부터 발생하는 위기들이 모두 생명위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흥도 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이 병들고 죽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땅이 죽어가니 사람도 죽어가는 것이고, 사회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성서도 생명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잖습니까. 평생 땅에서 나서 땅 위에서 살다가 땅 위에서 난 것을 먹고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 우리의 기반인 땅이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농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곧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이 병들고 죽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땅이 죽어가니 사람도 죽어가는 것이고, 사회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땅이 죽임의 기운으로 가득차 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회도 죽임의 기운으로 가득차 더 폭력적으로 되고 자살률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다 먹는 걸로 만들어 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커피가 나랑 전혀 다른 별개의 물건이지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먹을거리들,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기운을 가진 먹을거리들을 우리가 먹고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되고, 사람의 몸이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기운으로 변화하니까 사회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애영 지금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차 목사님의 진단과 이에 대한 경고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자연파괴, 환경파괴, 생태계 위기가 초래한 문제를 짚어 주신 것입니다.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 등에 의해 살처분 당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위기, 생명파괴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계 위기 문제에 대해 인류가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으로 1970년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환경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중들의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 사회는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 사회 변혁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환경운동과 생태계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지구 환경의 변화의 위협에 직면해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는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

“현재 우리의 숨통이 끊어질 듯 느끼는 극심한 생명파괴와 환경오염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즉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오염과 폐해입니다.”

는 때보다 오늘에 이르러 땅이 오염되고 땅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숨통이 끊어질 듯 느끼는 극심한 생명파괴와 환경오염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즉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오염과 폐해입니다.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열대 우림 파괴를 자행해온 거대 기업들의 행태라든지, 북미의 햄버거용 소고기 공급을 위해 남미 대륙을 거대 목축지로만 묶어두게 만든 구조적 문제가 바로 우리시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용어들로 오늘의 자본주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승자 독식의 사회죠. 중산층 사람들, 웬만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 즉 나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극소수의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금융거물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동안 금융위기에 직면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구호와 점령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폭력적인 질주는 사회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으니, 미국은 지금 ‘1%를 위한 나라’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시위대가 지목한 그 1%가 부러워하는 0.1%의 세계적 부자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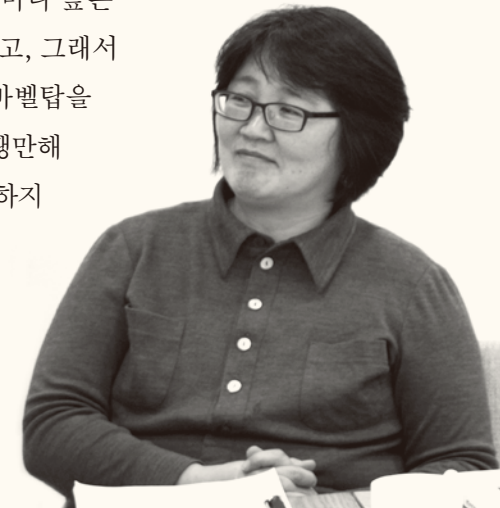
리트로 대표되는 서구 금융거물들은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정치권에 대한 막대한 로비를 통해 끈질기게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급기야 세계경제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부의 집중 속도를 보자면, 1980년 미국 노동자 소득의 42배에 달했던 최고경영자(CEO)의 평균소득이 2012년에는 380배로 급증하였고, 소득 증가분의 93%는 상위 1%가 독식하였으며, 게다가 그 1% 중에서도 0.1%의 소득 증가율이 나머지 0.9%의 증가율을 크게 추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화 현상이 사회 양극화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지요.

2011년 미국에서는 월수입 2천500달러 이하인 빈곤가정에 290달러짜리 푸드 스탬프(식권)가 4천500만 명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 인 초극단적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바로 규제받지 않는 기업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소 팔고 논 팔아 공부시켜 놓으면 가정을 이루고 교육시키고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가 끝장나고 조퇴, 명퇴에 내몰린 중산층들이 급기야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세상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질식시키고 급기야 자살로 몰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한 입시경쟁으로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현상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생존을 염려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한마디로 중산층 붕괴 현상에 의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부 생존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람들이 느끼는 생명에 대한 갈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살처분 해야 하는 동물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었지요. 지금은 동물 살처분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의한 공장식 축산업이 초래한 살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운숙 생각해 보면 어느 때나 물질 숭배는 있었고, 물질적 풍요에 대한 추구는 강

했지만 요즘처럼 물질과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크고 극단적인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덜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가난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상호부조하며 모든 것을 나누는 힘이 있었고, 외부의 커다란 돈의 흐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자급하면서 자신들의 존엄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고 돈의 위용만이 거세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돈으로 보이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돈이고, 땅에서 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만 연관되다 보니 땅이 갖고 있는 생명의 힘보다는 땅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얼마나 환산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농업을 바라보게 되고 말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하는 <TV 동물농장>이란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를 키우다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깐 그냥 버리고 가서 개들이 거의 아사 직전 상태로 방치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새끼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방치하고 있던 주인이 와서는 그걸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더라 말입니다. 동물은 더불어 사는 생명이 아니라 그저 돈일 뿐이라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물질과 돈이 위력을 발휘하며 이제는 돈이 없는 상황이 고향이나 공동체의 상실보다 더 큰 공포로까지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김기동 아마 땅이 오염되고 땅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심각한 게 땅을 땅으로 보지 않고 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면서, 땅보다는 그 위에 얼마나 높은 빌딩을 쌓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쌓는 경쟁과 욕심이 어느 시대보다 더 팽만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끝까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은실 교수님은 신학자로서 왜 특별히 생명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왜 특별히 농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애영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구약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잘못, 탐욕과 추악함, 뻔뻔함, 위선과 오만과 같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낱낱이 그려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든지 ‘강한 팔로 구원하신다’ 등등,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듯한 표현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반면에 신약의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쓴 서신들인데, 이는 이방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추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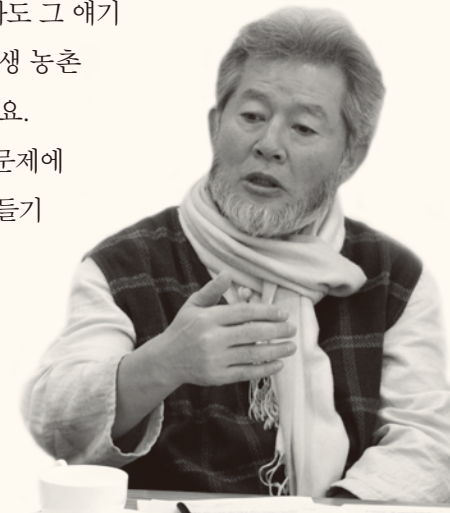
우리 주제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끝까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 나름대로 말해보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독교 신앙이 너무도 개인주의화, 사사화(私事化) 되어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에도 마치 그것을 신앙인 양 여기는 개인주의, 출세 지향적 신앙의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기독교는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한 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근심으로 치부되고 있습

니다.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세상의 환호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모하는 교인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서를 읽을 때 성서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그 어떤 신학자와 교수와 목회자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서를 다시 읽어야 되고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게 되었을 때에만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타자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위 취득을 마치고 신학교 교수들이 된 우리들은 강의와 신학적인 노작들을 집필하는데 몰두하고, 신학생들은 학점 따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데에 몰두하다 보니까 대체로 우리의 사명 혹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현실 문제에 발을 올바르게 딛고 서는 그런 신학을 하면, 힘 있는 신학, 신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올바르게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차흥도 나는 처음에는 생각 없이 끌려갔어요. 신학대학원 다섯째 학기쯤 돼서 어떻게 해야 하지, 어쨌건 소외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친구의 입을 통해서 던져줬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 친구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탁 마음을 정리했어요. 난 농촌으로 간다라고 말이에요. 선후배들이 농촌에 살 놈이 아니라는 등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난 평생 농촌에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지요.

처음 농촌에 내려가서는 농민의 권익문제에 눈을 땀어요. 그래서 자주적 농민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농촌 목회자들이 농목이라



“지금 우리가 바로 문명의 전환 지점에서 있다는 거예요.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직선의 운동에서 곡선의 운동으로, 딱딱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는 조직을 만들면서 활동가 역할들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사회적 흐름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막 이루어지고,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군농민회/전국농민회 총연맹들이 만들어지면서 농목 내부에서는 우리 본연의 일로 돌아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생명운동에 눈뜨게 되었지요. 우리 스스로 땅을 가꾸자, 텃밭이라도 가꿔서 호흡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일부는 전업 농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 목사들이 생겨났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 둘씩 먹을거리 안전의 문제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되고 먹을거리 운동을 하면서 결국 핵심은 땅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생명운동의 핵심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도시에 있는 교우들과 나누기 위해서 생협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대안학교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깨달은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문명의 전환 지점에서 있다는 거예요.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직선의 운동에서 곡선의 운동으로, 딱딱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의 시점에 먼저 느낀 사람은 먼저 가고 늦게 느낀 사람은 늦게 가지만, 우리들이 다 함께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김기동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목사님이야말로 그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내고 몸소 살아가신 분이시군요.

차홍도 아니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 배웠죠. 1970년대에 중반에 일본 애농회를 만

드신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분들에게 농업의 문제, 땅의 문제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때 그 제자들이 모여 바른 농업을 해보자고 ‘정농회’를 만들었어요.

김기동 목사님도 정농회 회원이신가요?

차홍도 회원은 아니에요. 저희는 세례를 두 번 더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번은 사회과학의 세례였고, 그래서 구조악을 무찌르는 운동에 열심이었구요. 마지막은 녹색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에 뛰어 들었는데 그때 정농회 어르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김기동 그럼 지금 몇 년을 해 오신 거예요?

차홍도 우리 농촌 목회자들이 이런 생명운동의 흐름으로 돌아선 것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농촌선교는 어떻게 보면 정의운동이었죠. 정의라 함은 성서로 보면 판단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 거기엔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옳은 편에 서서 구조악을 타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농민들이 못살고 부채에 쫓겨 야반도주 해야 할까, 저 농민들을 못살게 하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조악을 물리쳐야 한다고 봤던 거지요. 그런데 그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찾는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운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제 안에서 식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올려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향점 자체가 다릅니다.

김기동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명의 존재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생명운동을 목사님도 이삼십

“옳고 그름을 찾는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운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제 안에서 삭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올려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년 가까이 해오셨고, 교수님도 생명신학, 여성신학을 이삼십 년 넘게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삶과 신학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애영 제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 조금 더 말하자면 한동안 기독교인들과 신학생들도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그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인사들, 신학도들, 목회자들 중에는 좌표를 상실한 채 자신이 헌신하던 사회운동과는 다른 방향의 소위 영성훈련, 영성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성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 불의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신했던 정의를 위한 헌신으로부터 사회체제로부터 분리된 사사화된 영혼 내적인 행위에 매몰되는 양상을 보이는 영성운동으로 노선을 바꾸었지요.

그러한 변화와 더불어 세계풍조는 더욱더 물질만능의 시대로 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좌표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의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뜻있는 분들이 그래도 사회적인 발언도 하고 농목 활동도 하고 있으나 기독교 전체 물질은 너무나 혼탁하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과연 주도하고 있느냐에 대해 제대로 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어 ‘개독교’라는 치욕스런 칭호를 듣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일 것입니다.

김기동 기독교 자체가 정말 지속가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생명의 문제인데요. 지속가능한 생명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먼저 찾아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차목사님, 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처럼 귀농을 하면 생명의 기운을 살린다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도시민이 다 땅으로 갈 수가 없으니 이 도시 안에서 삶의 지속가능성, 생명의 기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차홍도 국민농업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표어가 ‘온 국민이 농부가 되자’입니다. 생명운동이라는 건 바로 다시 농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는 거라 생각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쿠바 열풍이 일어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쿠바를 갔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쿠바가 어떻게 미국의 경제봉쇄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들여다보니 바로 거기에 자급자족 체제가 있었어요. 쿠바 사람들이 모든 땅을 다 농토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만 짜투리 땅에도 다 무언가를 심어서 먹을거리를 충족하는 거예요. 도시에 농부들이 생긴 겁니다.

김애영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당시의 대선 구호가 ‘더 많이 일해서 돈 많이 벌자’는 것이었어요. 사르코지는 우파 정치인인데, 거기에 맞선 좌파 사회당 대선 후보인 현 대통령의 당시 애인이었던 세콜렌 루아얄이 내세운 구호는 ‘공정한 사회와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굴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더 많이 일해서 돈 많이 벌자’는 사르코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성향을 가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화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계층이 더욱더 증가하는 사회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공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걸으려는 세계적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패턴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대공황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완전히 다 썩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출세하고, 멋있는 차타고, 잘 차려입고 살던 사람들이 대도시를 탈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글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이 탈출을 해서 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 한 뼉이라도 확보하고 장아찌를 담그고, 닭을 키우는 일들이 전개된다는 것인데, 그들은 국가가 우리를 전혀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텃밭을 가꿀 때 똥냄새가 난다, 흄냄새가 싫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최악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경우 어디에서라도, 그야말로 타워팰리스에서라도 닭을 키워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기에 각자 알아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가 생명위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패턴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무한 경쟁사회로 몰아넣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으로 양분되었던 세계의 한 축이 붕괴되자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본주의적 삶 이외의 더 이상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자본주의로 인한 세계의 초

극단적 양극화와 부의 집중화가 진행되어 0.1%의 슈퍼 부자들만의 세상으로 변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권의 박탈로 인해 죽음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체제론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는 동구권의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이후 이제부터 앞으로 50년은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놓고 고민하고, 뒤죽박죽이 되고, 투쟁하는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러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진통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연구만 하고 다 같이 농사만 지을 수 없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동해야 하는 그런 사회로 진입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무한 경쟁의 열차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지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어떻게 농심을 회복하여 살 수 있느냐고 할 때 비록 작은 텃밭이라고 가꾼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회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차흥도 간디 선생이 이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류사회가 다 같이 행복하려면 모두 함께 한 계단씩 내려오라고요. 저는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이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는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 누리려고 하고 조금 더 불편한 데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스갯소리인데, 복음서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가 좀 불편합니다.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요구하는 사회,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팽배해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이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는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 누리려고 하고 조금 더 불편한 데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김기동 물질문명과 기술이 발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아마도 두 분은 삶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덜어내고 함께 지혜와 협동으로 살아간다는 기대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지향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애영 목사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에 대해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사실 지금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목회자들만 해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TV 등을 통해 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도저히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힘차게 전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하고 동시에 그런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상담학에 대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으나, TV를 통해 어린이들, 심지어 동물들의 행동교정, 혹은 위기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프로그램들을 시간이 허락되면 열심히 볼 때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접하게 된 현실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점점 더 갈수록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큰 고통과 폭행, 빈곤 속에서 비인간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의 고통을 접하면서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인정과 자존감 회복이 이들의 치유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역을

함, 빈곤과 멸시 천대 속에서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날로 증가하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은, 오로지 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한갓 쓰레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한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나는 미국에서 지옥을 봤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대체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유한 나라, 우리를 돌봐주는 나라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의 유동성의 세계’를 논하는 책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계 질서와 제도가 고체성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유동한다는, 굉장히 모든 것이 유동적으로 변화된 액체성의 자본주의 세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라는 오늘의 시대가 만들어낸 악몽과도 같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즉 유동성이 지배하는 오늘의 시대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는 유토피아일지 모르나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된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전개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학자의 결론에 의하면, 이러한 지옥과 같이 이런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당한 이 자본주의의 문제, 극소수의 0.1%의 사람들에게만 신세계를 안겨주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지옥의 삶을 강요하는 온갖 종류의 압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에 대한 추구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목회도 전개해야 하고,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우리의 먹을거리도 지켜나가는 귀농·귀촌활동

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하고, 못생명을 살리는 여성운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흥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무엇보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행복에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지요. 조건은 새로운 조건을 낳는 법인데 충족되지 않지요. 그러다보면 사실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요. 그렇지만 사회는 전반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눈으로 보다 보니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자괴감을 갖게 되지요. 이걸 기존의 사회에서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자기들을 쫓아오게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잖아요. 내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청년 때 한센병원에서 자원봉사 했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병원에 한센병자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손도 그렇고, 근데 얼굴이 그냥 너무 밝은 거예요. 늘 웃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물어봤대요, “야 난 너 같으면 밝지 못하겠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난 예수를 믿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신부가 되었는데, 정작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존재 자체의 행복을 알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 중 ‘생명평화결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는 ‘세상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라는 이 단체의 구호가 좋아요.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자기 안의 평화 없이 분노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이 평화운동을 한다면 평화를 이루기가 불가능한 건데, 우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평화가 되어야 세상에 평화를 이루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들이 이런 흐름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김기동 듣다 보니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저항과 거부하는 힘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힘을 개인 안에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항과 거부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털어내자는 것도 개인 안에서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 힘든 것은 그 시커먼 물결 속에 살아남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김애영 많은 사람들이 생명위기·파괴를 저지하려는 각종 운동들을 여기저기서 전개하고 있는데 그 물결이 옳은 방향으로 수렴되고, 그 흐름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면 결국엔 도도한 물결로 전개될 것입니다. 차 목사님께서 교회가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인데 늘 혼자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저는 그 분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방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혼자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조그만 소리로 답변하였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전부 자녀가 미국 어느 유명대학으로 유학을 갔네, 어느 힘 있는 집안하고 혼사를 맺었네 등등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다닐 만한 사람들끼리의 사교집단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앞으로 몇십 프로는 교인들이 감소할 것인데 어떻게 교인들을 확보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개발 붐에 편승한 한국교회는 신도수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형교회들로 성장하였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으나 이제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해진 교회들이 어떻게 소외된 자들을 대해 왔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우리 교단은 타교단에 비해 대형교회가 없다, 그래서 죄 지을 일도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단만이 올바른 신앙과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대형교회로 성장할 여건만 주어진다면 결코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지닌 그칠 줄 모르는 인간 탐욕의 문제인데, 사실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자본주의 물결에 편승하는 데 있어서 교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 고아,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 배려, 연민, 이러한 차원을 상실한 기독교가 과연 진정한 기독교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는 자존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오늘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물결에 의해 능력 없는 개인들이 극심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자본주의 자체도 그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절절한 추구로 나서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지하고 어떤 희망과 대안을 찾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류를 비롯한 피조세계가 이 땅에서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운숙 제가 얼마 전 오키나와에서 열린 한일YWCA협의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군사기지 문제와 평화에 대해 일본 참가자들과 함께 많은 것을 듣고 경험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일본에서 가장

주민소득이 낮은 오키나와에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더니 오키나와 지역사회에는 나름대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이후 일본 사회의 장기 불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자립해 보려는 시도를 가지고 이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옛그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또 다른 현에서도 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결과 그 지역 출산율과 여성들의 삶에 만족 지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본의 폭력적인 힘에 저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 다른 삶이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와 지속성과 자긍심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스펙 쌓는 데 골몰하여 도서관에서 청춘을 소비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말이지요.

김기동 교회와 기독교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계에 함몰된 형국이니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우리가 지금 생명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고, 곧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 힘이 모아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YWCA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Y는 처음부터 여성들이 함께 모여 이 땅을 살리는 희망을 가졌었어요. 공동체를 꿈꾸고 새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데 조언해주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은실 Y활동가로서 Y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받는 것을 느낍니다. Y에 와서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때론 진정한 사회참여를 통해 그 기대를 충족하기도 하지만, Y에서조차 지금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보고는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의 기관들과는 다른 하나님 기관의 모

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세상 속의 교회’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실망이 있다는 건 또 다른 희망일 겁니다. Y가 세워졌던 당시의 본질을 다시 부여잡고 92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Y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그것이 Y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기대하는 분들과 실망했던 분들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Y에 있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애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예수운동의 핵심인데, 이는 평등주의와 포괄주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쓰인 그 시대는 위계질서적, 신분제적 차별이 엄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한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운동의 핵심이 바로 복음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과 경쟁과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당시의 기독교는 세계 종교로 발전한 오늘의 기독교와 다른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박해받던 기독교에서부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공용된 종교로 바뀌면서 소위 지배의 종교의 위치로 바뀌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하찮은 여종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예수운동의 핵심내용에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라는 방식으로 신학적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관계하는 기독교 여성단체의 역사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을 유지하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Y와 제가 관여하는 단체를 비교해 보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Y는 거

“본질을 찾아야 하겠다는 노력이 옛날 것을 고수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와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조적이죠. 더군다나 명동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Y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습은 미약했을 것이지만 Y는 굉장히 소박하고 역동적이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Y에 참여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거대조직이 되고 여러 유명한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이런 지도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마도 공룡처럼 비대하나 예전의 역동성을 상실한 듯 보입니다.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옛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조직, 젊은 사람들과는 호홉하기 어려운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직업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허덕이는 미래 세대들한테 Y에 와서 활동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문제점을 Y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질을 찾아야 하겠다는 노력이 옛날 것을 고수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와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와보니 좋더라, 그럼 너도 와봐라”, 이렇게 되어야 교회도 성장하듯이, “내가 와봤는데 별로더라, 그럼 너도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비판을 가하겠지요. 거대한 건물과 재산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Y의 정신을 살아냄으로써 시대를 밝히는 조직으로 늘 거듭나는 Y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차홍도 난 십여 년 전 GMO 반대운동을 할 때 Y에 연대 제안을 했는데 부결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때 Y가 정말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역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탈핵운동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위에서 먼저 깨달은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지요.

김기동 Y가 택한 2014-2015년 6대 과제 중에 올해는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정했는데요. 탈핵운동은 먼저 부산, 울산 등 영남 지역에서부터 일어났고,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서 핵발전소 문제는 단순히 영남 지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식이 공유되면서 올해 중점운동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흥도 나는 탈핵의 전선에서 Y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의 삶 속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반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적정기술을 활용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를 아끼고 단열시키고 이런 것들이 일상에 삶에서 배어날 수 있도록 운동이 흘러 나가야 한다고 봐요.

김기동 탈핵운동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애영 지금 지역Y에서부터 탈핵운동이 제안되고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운동을 전개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그 운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 또 왜 이것을 전개해야 하는가를 공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듯이 지금까지 어느 한 조직을 육성하고 이끌어 온 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선배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면서 일들을 추진해 왔지만, 막상 후배들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잘한다고 후원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개해온 것들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배들과 공유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동시에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공유하는 일도 조직문화의 발전을 위해 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역Y가 급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탈핵운동을 실효성 있게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미리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꾸준히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탈핵운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슈인데 왜 Y가 이를 위해 나서지 않느냐 하면서 무조건 당장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을 탓한다면 조직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발등에 떨어진 급박한 운동, 예를 들면 밀양이나 강정마을에 가서 다 같이 싸워야 할 상황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투쟁만이 아니라 이 운동을 뒷받침해주는 의식화 작업이 Y라는 거대 조직에는 항상 필요할 것입니다.

김기동 Y가 탈핵운동의 사업으로 가장 먼저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어요.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알자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의식하자고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만 운동성을 찾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또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하는데 이름을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라고 정했어요. 더 나아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자립을 몸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고민할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살림살이에서 일단 절약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끼고 사는데 어떻게 더 아끼고 사냐’는 반문을 합니다. 개인이 얼마나 절약하느냐를 넘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자체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차흥도 이제 Y의 운동은 지역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급과 자립을 위한 운동에 뛰어들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쯤 부안에서 핵폐기물 저장고를 짓는다고 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예요. 그런데 반대운동을 하는 부안 사람들이 공격받은 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너넨 전기 안 써?”. 그래서 핵 폐기물 저장소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성공한 다음에, 부안의 주민들, 농민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쓸 수 없을까?”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논에다 유채꽃을 심어 기름을 생산해 보려고 했어요. 유채꽃을 심었는데 첫해는 겨울을 못나서 죽었고, 목포대에 있는 유채꽃 박사하고 협력해서 유채꽃을 키워서 그 유채로 기름을 짜서 쓰고, 그 다음에 부안 읍내에 있는 폐식용유를 다 걷어서 그걸 다시 재생유를 만들어서 쓰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생활 속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일들을 지역Y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석유재벌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 이것을 만들어 팔아먹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파는 것 외에는 다 불법 기름이라는 거지요. 군민발전소, 군민 주유소를 만들고 이걸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많이 걸려 있어요.

김애영 기업체 이익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산업계 전체가 에너지 절약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업체들은 정부나 시민단체나 운동단체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해관계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더 편리하면서도 환경 파괴적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위해 많은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이해득실 자체가 기업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써 친환경 산업의 핵심일 것입니다. 사실 환경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주부들한테 생활세계를 적게 써라 하면서, 마치 공해의 주범이 주부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가장 큰 오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여야 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또한 개인 생활에서도 철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탈핵운동, 환경운동 등 생태계 파괴를 저지하는 운동을 하면서 분담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는데, 전부 도토리 키 재듯이 경쟁적으로 어디든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마는 일이 벌어져요. 한쪽에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할 수 있고, 한쪽에

서는 좀더 생활 밀착형 일을 전개할 수 있는데 똑같이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모든 걸 다 쥐고 독점하려고 하는 부작용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Y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Y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같이 연합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김애영 저 역시 같은 기독교 여성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튼튼한 단체들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합하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는 큰 역할을 감당해 주는 문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Y의 공헌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Y가 초창기에 지녔던 역동성을 한껏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 Y 내적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Y에 대해 외부인의 시선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것을 말해 본다면, Y가 자기만족적이지 않고 큰 단체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Y가 가진 자산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펼쳐나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Y를 보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여타의 기독교 여성단체들과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니까 우리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기독교 여성단체들의 현황이 어떤가도 돌보는 언니노릇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전반적인 기독교 침체와 사회적 공신력 상실을 함께 회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Y도 언제 어떻게 쇠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기구와 건물만 남을 수도 있죠. 인적 자원이 계속 새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이 외면한다면, Y가 과연 앞으로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차홍도 나는 Y가, 지역Y로서 지역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이 순환해야 국가적으로도 순환이 가능해요. 지역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의 이웃을 회복할 수 있고 마을을 회복할 수 있어요. Y가 지역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고 거창한 데서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든다면, 창문에 있는 햇빛가리개를 창 밖에 두면 최소한 실내온도가 3도가 떨어져요. 3도 떨어지면요,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조그만 선풍기 하나만 틀어도 지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벽도 가려주면 저녁에도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열을 머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너지절약, 전기절약, 이러한 소소한 일부터 지역에 다양한 단체들과 손을 잡고 나가면 순환이 되지요. 순환하는 사회를 위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Y가 언니 노릇을 해 주었으면 해요. 원래 ‘언니’라는 말이 ‘어질다’는 의미와 ‘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니란 바로 ‘어질게 이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언니인 것처럼 Y가 진정 언니가 되어야 해요.

김애영 저는 거대 조직이지만 평등한 조직, 신나고 유쾌하고 살 만한 조직의 문화를 창출해 주는 것도 Y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억눌려 있다고 하지만 여자들끼리 모인 데 가면 거긴 거기대로 무서워요. 전부 상하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하시면서 탈핵운동을 비롯하여 늘 살아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신나게 하시는 Y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양성 평등과 교역’이라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신학생들 중에 남자 신학도들이 많으니 수강생들도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목회자들에게 늘린 것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대원생들이지만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르면 수업은 뒤로 하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학생은 부업이고 교회 전도사가 본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목회자들 역시 목회현장에서의 고된 사역에

“지역이 순환해야 국가적으로도 순환이 가능해요. 지역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의 이웃을 회복할 수 있고 마을을 회복할 수 있어요. Y가 지역을 회복하는 일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해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동역자,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관계가 우애가 넘치는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교회라는 조직의 상하복종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시급해요. 이러한 위계질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남자와 남자들 사이의 위계질서일 수 있어요. 모두 생명을 죽이는 구조이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제되고 소외되는 잘못된 구조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평등주의와 포괄주의로 요약되는 예수운동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감격의 조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볼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소년들이 입만 열면 그들의 언어가 온갖 욕으로 채워진다는 소식을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학생들이 욕하던 버릇을 중지하겠어요?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 입시전쟁에 내몰리고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욕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욕이 어떤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을 무한경쟁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통한 치유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은 채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꾸자, 언어를 순화하자 혹은 성차별적 언어를 성평등적 언어로 바꾸자는 등등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Y같은 조직체가 여타의 기독교 여성단체들과는 달리 훨씬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생명문화로 바꾸는 일에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

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김기동 살아있다는 게 모든 것의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생명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찾아야 되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지금 탈핵문제를 떠나서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살리고, 조직 안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로를 살리는 생명으로 Y가 이런 부분을 해주길 바란다는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흥도 지역Y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위탁받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지역 순환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지역 내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그런 그룹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지역Y가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역 문제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세, 세상을 연다는데, 교회가 지역하고 담을 쌓잖아요. 이 담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지역 속에 있는 거지 어떻게 지역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지역에 뛰어들어 가야 하는 것처럼 Y도 지역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지역의 공동의 과제를 같이 추구해 나가야 해요.

지역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역에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이 일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일 외에도 그들을 위해 할 일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룹들도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에게 허황된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재능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고, 이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역 안에서 실현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전 이런 일들을 지역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Y가 충분히 그 중심에 서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동 우리나라에 지역이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서울과 지역의 이분법에서 지역은 늘 소외되고 지체되곤 하는데 말이지요. 지역은 되돌아올 고향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곳이 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김애영 지역의 소외도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급격히 발생했어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했듯이 자본주의적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아무리 지방 활성화 혹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내놓아도 안 되었습시다. 신학대학원에서 나의 지도로 석사논문을 쓴 졸업생이 자신의 모교 경북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그 학과의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 자신처럼 모교 출신은 자기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부 서울이나 해외 유학을 떠나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또 하나는 우리의 당면 문제로 보자면, 분단의 굴레로부터 어떻게 극복하고 올바른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분단의 극복 없이 어느 단체이건 우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결코 미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동안 통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으나 점점 갈수록 식고 있고, 특히 젊은 이들은 북한과는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통일은 대박'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지막지한 자본주의 사회, 게다가 분단 상황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동안 Y가 통일운동에 헌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채우는 데 Y가 많은 공헌을 해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박은실 오늘 대담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애영 저는 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깨우치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생명을 위협받는 수많은 곤핍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학자처럼 알아듣고 그들의 처지를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피눈물 나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정의로운 혀를 지닌 Y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차흥도 Y가 밀양 송전탑 건설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일 등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네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Y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늘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한 것처럼 Y내에서도 협력이 되어야 되고, Y가 다른 단체들과도 협력이 되어야 되고, 지역 내에서도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르침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동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언니 역할, 평등적 조직문화, 사고의 전환, 공동체적 운동,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이 시대를 향한 Y가 지닌 소명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명위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기독교여성들의 실천

최만자 /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1. 죽임의 현상들은 어디로부터 왔나?

“좋은 엄마는 나를 강가에 데려다 줍니다.
좋은 엄마는 나를 나무에 기대게 해 줍니다.
좋은 엄마는 나를 흙과 바람과 풀잎에게 데려다 줍니다.
좋은 엄마는 나를 친구에게 데려다 줍니다.
좋은 엄마는 해가 지면 나를 부르러 강가에 옵니다.
이슬아 밥 먹어라
달빛아 밥 먹어라
나를 부르러 강가에 옵니다.”

김용택 시인의 ‘좋은 엄마’라는 이 시는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내일의 좋은 세상을 살아 갈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이다.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명 파괴의 현상들은 부지기수이다. 요즘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 기후변화의 현상은 인류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심각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 현상의 환경·생명문제, 전쟁, 테러 등의 갈등 현상, 절대빈곤과 아이들의 죽음의 문제, 다국적 기업의 착취와 횡포, 금융기업의 횡포, 정의 없는 분배의 경제불의와 같은 자본의 폭력으로 인한 비인간화 사회 문제,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초래시키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가치 지향으로 인한 경쟁과 소유지향적 삶의 행태들로 나타나는 총체적 사회위기의 현상들이 숨막히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20세기가 인류사회에 가장 전쟁이 많고 기아, 재난, 사회적 불의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재앙의 시대였다고 평가하면서 21세기를 희망으로 기다렸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더 암담한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인류가 이 모든 경고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위협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든 그 요인들은 무엇일까? 산업화 이후 인류사회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가치들의 확장과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가부장제의 변형된 재강화로 인류의 삶에 부정적 측면을 끝없이 조장하여 왔다. 이 세 가지 요인, 곧 자본주의적 가치 확장으로 인한 소유 지향과 경쟁과 성공주의 지향,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편안한 생활방식과 사고에의 안주와 끝없는 개발과 발전 추구, 그리고 가부장제의 재강화로 인해 지배, 통제, 차별, 배타적 방식의 정당화 등의 삶의 행태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자본 중심, 자본 지배의 사회는 소비문화, 물질화, mammon화되어 심각한 빈부 양극화가 나타났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여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가혹한 경쟁으로 내모는 강력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의 추구에서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혹은 ‘존재하기’로 우리 삶을 옮길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변화’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중심적 삶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러한 가치에 기반한 근원적이고 본질적 가치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배제당한 자,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웃에 대해 무디어진 관심을 살리게 되며, 성차별,

절대빈곤의 문제나 아이들의 죽음의 문제,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착취, 그리고 부와 힘을 가진 자나 나라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의 감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소유적 삶의 형태에 저항하며 살고, 변화를 위해 참여적 삶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연대, 정의, 평화의 불빛을 밝히겠다는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며 예언자적 외침을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변화 핵심은 자본주의적 가치들, 소비, 소유 지향적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유 지향적 삶의 행태는 자본주의와,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가부장제적 지배구조의 결합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결합은 끝없는 성장과 발전, 개발, 그리고 오직 소유, 성공, 승리를 위한 경쟁주의를 낳았고, 인간과 자연을 대상화하여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효율적 가치로 평가하여 능력있는 인간은 존중하고 아니면 배제하거나 낙오시키는 사회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결국엔 소비문화와 상업주의의 팽창,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번성시키고 성공과 출세, 능력있는 인간 만들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의 세상을 만들어 인간과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업주의로 인한 소비인간의 모습은 겨울철에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세계의 자원의 70%를 소비하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4주 동안 1년 소비의 40% 상품이 팔린다고 한다. 우리가 의미를 두는 선물 주고받기가 그 주범이고 신타 크로스는 모든 소비를 부추기는 주된 상징이 되었다. 종교적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소비축제, 경제 추동의 동력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었다(『크리스마스의 해방』, 리차드 A. 호슬리).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팝 아티스트 론 잉글리쉬의 작품은 고흐가 그린 교회의 십자가 대신에 맥도날드 광고를 그려 넣었다. 세상이 온통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을 풍자했고 무슬림 영역에까지도 맥도날드가 성황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맥도날드는 이미 전세계의 성공한 기업을 넘어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의 세계지배를 풍자한 것이다.

론 잉글리쉬는 어릴 때 별이 빛나는 밤에 교회 십자가의 반짝거림을 보며 유년시절 꿈을 가졌는데 이제는 온 거리가 온통 상업의 네온사인으로 번쩍거림에 싫증이 나서 그런 패러디를 생각했다고 한다. 성서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주석이 없이 그대로 ‘소유, 탐욕, 성공, 경쟁, 지배, 통제, 개발, 폭력’ 등 이러한 삶의 방식의 세상을 “절대로 본받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들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의 불의한 구조를 끊을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윤리적 결단을 하게 하는 힘을 주는 새로운 삶의 원리,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소유적 삶으로부터 존재하기의 삶으로

얼마 전 밤잠을 설치다가 우연히 한 TV에서 평소에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철학자의 인문학 강의를 들었다. 그도 지금 사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었는데, “자본주의적 가치를 극복하고 추구해야 할 세상은 사랑, 연대, 공감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관객들에게 묻는 다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창조적이고, 해방적인 삶을 위해 (단호하게) “취업을 하지 마세요, 상품을 사지 마세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세요, 돈은 목표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니 인간 중심적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였다. 좀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이긴 했어도 요즘 ‘레츠운동(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같은 물물교환적, 공동체적, 사람 중심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룹들이 여기 저기 생겨나고 있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곳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의 모순된 삶의 형태들을 단절시키는 힘을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태를 소유, 통제, 지배, 탐욕의 행태로부터 벗어나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사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말하기를, 안식일이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소유를 위한 삶을 중단하고 오직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궁극적 진리에 대하여, 존재 자체에 대하여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반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지금 세대에 대해 깊이 생각할 내용이라고 본다.

3. 대안적 삶의 원리 - 연민, 살림, 지혜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와 원리를 여성학자들은 여성주의 윤리-보살핌의 윤리라고 표현한다. 보살핌의 윤리는 이전의 남성적 사회윤리의 모순들이 극복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사회적 윤리로서 제시한 미래지향적 삶의 한 원리라고 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살핌이란 우리가 가능한 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를 관리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일 모두를 포함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우리의 세계란 우리의 몸, 우리 자신, 우리의 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복합적이고 생존을 유지하는 망으로 엮어 내고자 노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여성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이 도입한 이 보살핌의 윤리는 그가 대칭적으로 비교하는 정의의 윤리와 비교해 볼 때 여성주의적 원리들이 드러날 수 있다.

첫째, 보살핌의 윤리는 권리와 규칙이라는 개념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라는 도덕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살핌의 윤리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셋째, 보살핌의 윤리는 일련의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활동 - 보살피는 활동으로서 가장 잘 표현된다는 것이다. 보편적 추상적 원칙보다는 누구나 매일 매일 겪고 있는 일상 경험과 도덕 문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나는 여성학적 보살핌의 윤리를 기독교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원리들로 생각한다면 무엇이어서 할까를 생각하였다. 그리스도를 따

르는 우리들은 여성학적 원리보다 더 근원적으로 소유욕, 탐욕, 경쟁관계를 넘어서는 이 시대의 기독교적 가치와 삶의 원리들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첫째 원리를 '연민-사랑과 정의의 인간성 갖기'라고 말하고자 한다. 버트란트 러셀은 말하기를 '내 인생을 사로잡은 단순하지만 압도적으로 강렬했던 열정은 세 가지다. 사랑의 갈망, 진실의 추구,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연민이다'라고 했다 한다. 우리말의 '연민'이란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는 좀 나약하다. 그러나 영어의 연민 'Compassion'은 com과 passion의 합성어로서 '열정을 함께 함' 혹은 '고난에 함께 함'의 뜻으로 '불붙는 듯한 열정'으로의 감정이입Empathy, 즉 상대의 상황에 함께 하는 것이다.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이 연민의 의미가 잘 나타난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왕이 칼로 아이를 나누어 주라는 말에 한 여자가 '모성애가 불붙는 듯하여(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because compassion for her son burned within her, 공동번역-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개역-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는 아이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 저 여자에게 주고 아이 생명을 살려 달라 애원하는데, 이때의 단어 '모성애'가 바로 '연민Compassion'이라는 단어이다. 히브리어 연민은 '라하뎀'이란 복수형인데 어원은 '레헬', 즉 '자궁'이라는 단어다. 자궁이라는 여성의 신체기관이 복수로 되면서 추상명사인 연민으로 전환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자궁은 소유나 통제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이다. 아기의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그리고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상태, 그것이 연민이다. 그래서 연민은 정의와 맞닿는다. 약하고 힘없는 것, 주변부를 향하는 것, 그리고 생명 살리기를 향하여 끌어오르는 열정을 가지는 것, 그래서 불의한 것에 저항하는 것이 연민이다. 이 연민은 예민한 감수성에서 비롯되는데, 다름 아니라 불의에 예민하고 정의에 철저한 감수성에 의해서 발동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극적이고 감상적인 자선심,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생명보전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인간성의 바탕은 이 연민의 인간성이며 따라서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정책의 정신적 기반은 바로 이 '연민'의 속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시대와 이웃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연민의 행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원리는 ‘살림-생명 중심과 연대’이다. 성서적 인간형은 ‘살림이스트Salimist’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신학자들 중에는 한국여성신학을 ‘Feminist Theology’라 하지 말고 ‘Salimist살림이스트 Theology’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있다. 우리 말에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살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존케 하는 살림이다.

‘살림’이라는 말은 1970년대부터 ‘민중신학, 생명신학, 여성신학’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 되어왔다. 그것은 죽임의 문화가 너무나 팽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문화를 뒤집어 살림의 상태로 바꾸어 나가자는 의도였다. 민주주의가 힘을 잃고 군부 독재 아래 억압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성공적 상품 만들기, 이윤 남기기, 효율적이고 능력있는 인간되기를 위해 쉴 새 없이 달리고 달려 인간을 황폐화시켜왔다. 그것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은 제한 없이 개방되어 신음하였고 인권은 없어지고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은 더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에서 무한경쟁으로 돌입한 세상은 그 대열의 낙오자들은 비인간화시키고 남을 딛고 내가 일어서야 산다는 성공론을 확장시켜 교육에도 종교에도 모두 이 사상이 지배하는 신화들을 만들어 내었다. 경쟁은 죽이는 문화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인간을 야비한 인간성으로 죽이는 경쟁문화로부터 탈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문화 안에 경쟁원리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경쟁을 순화시키고, 개발은 지속 가능하게 자연과의 조화, 생명을 우선하며 생각해야만 살림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죽임의 태도는 샅꾼(표준 새번역-도둑) 목자의 것이라 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살림이스트’로 오셨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 받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삶의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잃었던 사랑이 회복되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서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예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삶은 바로 살림이스트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자리, 내 가정, 이웃, 교회, 학교, 직장 등 곳곳에서 우리

가 죽임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림이스트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살림의 가치는 보살피는 노동에 의해서 나타난다. 노동은 나의 생존과 타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며 그래서 살림은 생명과 연대함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삶의 방식은 ‘지혜-공감, 공동체적인 삶’이다. 지혜는 단순한 삶의 처세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혜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리를 인간의 일상적 삶의 경험에서 찾고, 어떤 주어진 규범과 법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진리나 정의를 규정짓는 일반적 법 질서와는 달리, 개개인의 생활과 맥락에서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특성이다. 어느 할머니가 ‘예술의 전당’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에게 갈 곳을 말하려는 순간 ‘예술의 전당’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전설의 고향으로 가 주세요” 했는데 기사님이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요즘 개콘에서 유행하는 말로 ‘느낌 아니까...’이다.

지혜는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소통하며, 원칙의 사회제도나 긍정성의 문제를 개인의 개별적 요구와 통합적으로 이루며, 합리성과 법칙에 의한 정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특수 상황과 그 맥락에서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생활 속의 정의이다. 지혜는 약한 자, 제도화된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힘없는 개인을 살아남게 하는 힘이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래서 지혜는 해학적이며, 창조적이고 힘없는 자들의 언어이다. 삶의 경험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획일화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온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지혜는 여성들의 삶에서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 성서에도 지혜를 여인으로 은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지혜자로 표현한다. 여성신학자 피오렌자 E.S. Fiorenza는 예수의 하나님은 지혜-하나님, 곧 소피아-하나님이었다고 말한다. 예수는 당시 유대사회와 종교가 부른 하나님과는 아주 상이한 하나님 이해를 표현하였는데, 소피아-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 경건한 자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결핍된 자들, 사회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죄인들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모든 이들을 포괄하여 안으

시는 사랑으로 경험된 하나님이며, 위축된 자들, 불구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창녀들- 이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모았다고 소개한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어 찾으면 기뻐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식탁 공동체에 초대하여 함께 하는 하나님, 아침 일찍 포도원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일하러 온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일당을 지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품어 포괄하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인간의 평등성과 연대성을 일으키도록 하는 하나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말씀은 이 기존 사회질서가 삶을 구속하는 굴레로 씌워져 있는 힘든 자들을 소피아-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예수의 소피아-하나님의 초대는 유대사회 기존질서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었는 데, 동시에 유대 기독교 질서에서는 이들을 일탈자로 취급하였다. 예수의 소피아-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철저하여, 옛 질서를 돌아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며,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급진적 회심을 요청하여 명백하게 새 질서를 구분짓고 있다.

예수의 지혜의 하나님 이해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삶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삶, 모든 이를 존엄하게 하는 삶, 모든 구조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삶, 곧 특정한 사람 중심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의미한다.

4. 삶의 방식 바꾸기

우리들을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게 하고 사고마저도 지배하게 된 것이 근대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전환시킨 것에 있다는 분석들을 한다. 근대적 시간개념과 공간개념은 우리를 물질주의, 경쟁논리, 획일화, 통제라는 삶의 방식에 지배당하게 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사고는 대량생산과 이윤을 높이기 위한 최고 상품 만들기이다. 우선 시간개념을 보면, 농경사회는 삶이 자연의 리듬을 따라 움직인다.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서 나가 일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쉰다. 농촌에서 살아보면 삶이 자연을 따라 움직임을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집 논둑에 가로등을 세웠는데 밤에는 이 불을 꺼야 한다. 그래야 밭작물이 자라기 때문이다. 노동의 양과 방법도 자기 체량에 따라 다르다. 농경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을 강제하는 것은 자연밖에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근대적 시간 개념에서는 이러한 시간 이해와 행동을 게으르다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대적 시간개념에서는 계속 무언가 일을 해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케줄이 빡빡하고 모두 바쁘다. 그냥 지내는 것은 절박함이 결여된 큰 낭비이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의 행동과 말, 사고를 제약하고, 그 흐름을 적당한 단위로 절단하여 채취하는 ‘시간’ 기계이다. 쪼각쪼각 거리며 우리 삶을 절단하는 시계-기계인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일어난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 분업화의 발달, 속도의 가속화 등의 생산양식 변화는 곧 시간의 효율성, 능률적 시간 활용을 최대의 가치로 인식하게 하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높이 평가되어 노동 자체가 아닌 ‘노동 시간이 가치로’ 정의된 것이다. ‘시간 내에’, ‘시간에 맞추어-혹은 더 빨리’ 일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 이러한 가치를 최대화시키고 양산하는 곳이 공장이며, 공장의 규칙에는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작업 시작 10분 후 정문을 폐쇄한다’,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는 직공은 한 시간에 3펜스 벌금을 물어야 한다’, ‘3분 늦게 온 노동자는 1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20분 늦게 온 노동자는 하루 일당의 1/4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등, 노동 가치가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기계가 사람들의 활동만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까지 침투하여 특정하게 코드화된 행동 양상, 습관 양상으로 신체에 새겨져 일종의 생체권력^{bio-power}으로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보다 더 선호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주위의 모든 것에 대응하고 신속

히 동작하는 사람, 예리한 시선, 생동감 넘치는 기민성 이런 것이 인정받는 행동이 된다. 이러한 능률적, 효율적 행동 양상, 습관 양상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며 바쁘게 사는 근원이 되었고 그 배후에 바로 근대적 시간가치들이 있다.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공간에 따라 우리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학교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공장이나 집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성당이나 교회나 절의 경내에서는 믿음의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제약 당한다. 이처럼 근대의 공간은 우리의 말과 행동, 사고를 제한하고 특정한 형태로 반복하게 하는 ‘공간 기계’이다. 근대적 공간 이해의 특성은 공장, 학교, 집과 같은 공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고 공장에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노동하게 함으로써 생산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집단의 획일화, 통제화 그리고 같은 행동의 양식화를 가지게 하였다. 근대적 학교 출현은 학생을 통제하는 양식을 갖게 되고, 후기에는 학급 분할 방식이 등장하였는데, 즉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통제하는 것이다. 근대에서 ‘집’은 사적인 폐쇄공간으로 축소되었다. 근대 이전의 집은 집안에 상점이 있거나 작업장을 가지고 있어서 집 밖의 거리와 그렇게 확연하게 불연속적 공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생산장, 소위 공적 영역과 삶의 장소, 곧 사적 영역이 분리되었고, 근대에는 독자적 생활공간으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집이 철저하게 분리된다. 이러한 근대적 시간, 공간-기계가 성립된 것은 사람들의 활동과 행위를 획일화, 양식화시켜서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규율과 체계와 연관된다. 그리고 그 통제된 생활양식들이 일반화되고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이 시간-기계와 공간-기계에 결부되어 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 근대성의 한 부분이요, 근대성의 삶의 형태에 묶여 있는 한 부속품이 될 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삶은 근대적 가치의 시간과 공간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와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하루 시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지고 있는 것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며, 이 근대적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소리 높여 외치게 될 상황에 이르렀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한국의 창조성 장벽이란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난다. 글을 쓴 교수는 국제정치학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그 분야 주요 학술지에 실린 10년간 논문 유형과 경향을 조사했는데, 그는 독창적 학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사회를 보고 여기서 창조적 교육은 안 보인다고 했다. 고등학생 시절 암기 위주의 공부와 시험요령에 익숙하여 대학, 대학원에서 창조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 생태계가 다른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중복으로 수구꼴통으로 딱지 붙이는 문제를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성 인프라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곧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샹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그의 책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한가로이 걷기, 듣기, 고급스러운 권태에 빠지기, 꿈꾸기, 기다리기, 시골 고향 가기, 글쓰기,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지혜, 모테라토 칸타빌레라(절약, 절제의 윤리 이야기) 등의 소재목들의 글을 쓰고 있다. 저자는 느림의 영역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다리기 싫어서 정각에 점심식사 장소로 달려가거나, 수업시간에 제일 앞이라야 직성이 풀리고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다니는 걸음들이 그는 싫었다는 것이다. 가끔 시골 농가를 방문하는 도시인들이 농가 주변을 슬쩍 보는 것만으로 농촌을 모두 안 것 같이 구는 것도 우습게 보였다고 한다. 그는 느림이 삶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삶의 시간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늬라든가 영원에 가까운 허무 속으로 숨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시간에 쫓기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만의 리듬에 맞추어,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팔자가 내게 운명지어 준 리듬에 맞추어 조용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내가 지켜 나갈 수 있기 위하여”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의 한가한 감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지금 명예퇴직 이후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하는 이들, 수많은 실직자들이 노숙과 방황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바쁘게 일할 수 있고 더 능



률과 효율성을 찾아야 할 판인데 웬 철딱서니 없는 말이나고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때 여유를 사랑하고 느낌을 찬미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이 더 필요하고, 이 기다림의 철학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고용제도나 선택적 삶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에 사는 한 어부와 미국인 사업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한 미국 사업가가 멕시코의 어느 마을 작은 해변 방파제에서 어부가 배를 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작은 배에는 제법 커다랗고 노란색의 지느러미 연어가 여러 마리 잡혀있어 미국인은 “좋은 생선을 잡았네요” 하고 인사하고는 고기 잡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 그 멕시코 어부는 “잠깐이면 된다”고 했다. 미국인이 왜 더 오래 많이 잡지 않느냐 물었더니, 어부는 이 정도면 우리 가족 하루살기에 충분하다 했다. 미국인이 나머지 시간은 무얼 하느냐 했더니, “늦잠자고, 고기 좀 잡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낮잠 자고, 매일 저녁 어슬렁거리며 와인 한 잔 하고 친구들과 기타치며 놀지요” 라고 했다. 미국인은 자기가 하버드대 MBA 출신인데 도와줄 테니 고기를 많이 잡고 더 큰 배를 사고 중간 도매인에게 팔고 어촌을 떠나 멕시코 시티로 가서 통조림 공장도 만들고 기업을 확장하여 뉴욕까지 가게 해 보라 했다. 어부가 “그렇게 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물었고, 미국인은 한 15~2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다. 그 다음 어부는 “다음엔 무얼하지요?”라고 물었고, 그 미국인은 “은퇴하여 어느 작은 해변 어촌에 와 늦잠자고 고기나 슬슬 잡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낮잠 자고 저녁에 어슬렁거리며 마을에 가 와인 한 잔 하고 친구들과 기타치며 놀면 되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지금, 우리 삶의 방식 바꾸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매우 절박한 일로서 다가와 있다.*

글을 쓴 최만자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거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구약성서신학을 전공하였고 1995년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및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YWCA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원장,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지은 책으로 『새하늘 새땅 새여성』, 『출애굽을 여는 여인들』,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이 여인을 기억하라』 등이 있다.

기획되어가는 가족, 재구성되어가는 가족, 가족공동체는 어디로?¹

조주은 / 유죄입법조사관

1. 들어가며

최근 뉴스를 접하면 훈훈한 기사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마음 한구석이 허허로 위지는, 혹은 관련 기관에 항의전화라도 하고픈 기사들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거친 세상의 안식처로서,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줘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 세상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 그러나 이러한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더 없는 삶의 오아시스로 의미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차별, 억압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친아버지로부터 어린시절부터 성폭력에 노출된 여아들, 53.8%에 달하는 부부간의 폭력, 자식들에 의한 노인학대, 고독사의 증가, ‘불륜’이라고 이야

1. 이 글은 한국사회사학회 2013년 가을학술대회(2013년 11월 1일~2일)에서 「가족관계와 법-간통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글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기되는 혼외관계의 증가, 한편으로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매니저형 혹은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²’, ‘혼인 기피’ 등은 한국사회의 가족을 아프게 드러내는 지표, 개념이기도 하다.

최근 가족과 관련한 진단은 한쪽 측면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이혼의 증가로 인한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으로 인한 보살핌의 공백 증가를 ‘위기’로 진단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위기’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변화’, 다양한 가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족에 관한 진단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한국가족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가족, 더 큰 공동체사회에서 애정 어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양극화 속의 한국가족 – 핵가족의 보수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최근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는 일면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동성결혼이라는 화두가 본격적으로 던져졌다. 지난해 5월 김조광수-김승환 게이 커플이 결혼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9월 초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에는 간통죄의 근간이 되는 국가철학, 사회질서와 국가 재생산의 근간이 되는 배타적 이성애 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가족규범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친밀성(intimacy)의 유형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 봐야 할 지점들은 <표1> 가족 형태별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이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갔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맴돌며 참견하는 엄마들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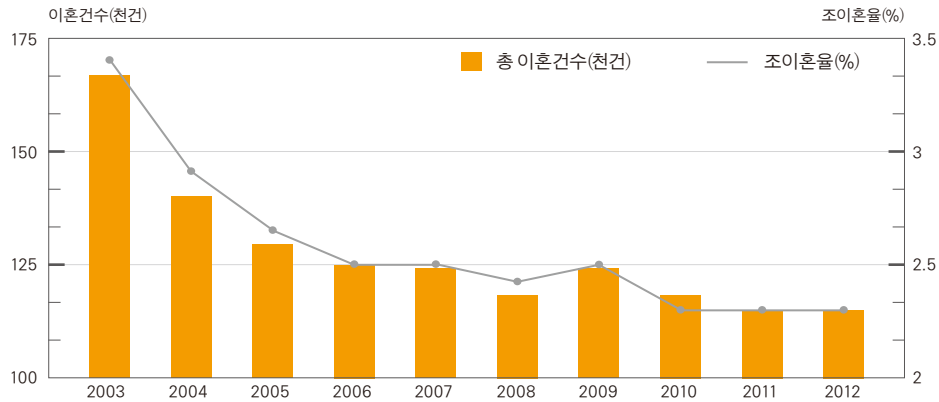
연도	핵가족			직계가족		조손가구	기타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80	6.0	53.0	9.3	0.6	9.8	-	21.3
1985	7.1	52.8	8.9	0.7	9.1	-	21.4
1990	8.3	51.9	7.8	0.8	8.4	-	22.8
1995	10.8	50.4	7.4	0.9	6.8	0.3	23.4
2000	12.3	48.2	7.9	1.0	5.7	0.3	24.7
2005	14.2	42.2	8.6	1.0	4.5	0.4	29.2
2010	15.4	37.0	9.2	0.9	3.8	0.7	33.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단위: 퍼센트, %)

<표1> 가족 형태별 분포

처럼 가족구성의 변화이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53.0%(1980년)에서 37.0%(2010년)로 감소하였지만 부부가족은 6.0%(1980년)에서 15.4%(2010년)로 증가하였다. 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 가족형태에서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해당한다(절대적이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2010년 기준 ‘기타 가족’의 유형이 3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성애 커플로 구성된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50%를 넘어서고 있다(<표1> 참조). 최근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담론도 있으나 실제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총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점차로 감소 추세이다(<그림1> 참조)³. 이혼 부모의 재혼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통계에 들어왔던 이혼한 부모도 빠르게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이동하여 가족이 재구성되고 있다.

3. 이혼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혼이 힘든 ‘유책주의’ 이혼제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어렵게 부부의 협의 혹은 소송 끝에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2000년대 이후 상승한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와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이혼은 매우 비경제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각자의 경제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기회 비용, 시간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퇴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 통계청, 『이혼통계』;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재인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dx_cd=1580&bbs=INDX_001&clas_div=A

〈그림1〉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2003년~2012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⁴과 경제활동 참여율 통계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일하는 여성을 참고할 때, 핵가족 중에서 소위 ‘맞벌이 부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맞벌이 부부들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위기·‘평생직장의 신화’ 붕괴·청년실업의 증가에 따른 경제력의 특권화, 무한경쟁 사회로의 유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간의 가속화, 노동시장과 가족의 요구 증가에 따라 고도의 계획·관리가 지배하는 가족(일명 ‘기획된 가족’)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업이 정신을 강조하는 경영담론들이 사적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중산층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어머니·주부로서의 역할이 ‘프로젝트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족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점점 많아질 뿐 아니라 전문화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녀가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용으로 하는 온갖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자녀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라”, “오염되지

4. 2012년 기준 49.6%(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않고 깨끗한 식자재를 싼값에 구입해라”, “자녀를 좋은 학원을 엄선하여 보내 성적을 올려라”,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라”, “너희 아이들이 어디서 나쁜 짓 하며 놀고 있을지 모르니 감시하라”, “자녀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여행을 다니고 적당한 스포츠 활동을 하라” 등의 온갖 ‘관리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기계발이라는 명목 하에 직장과 가족이 요구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은 특정한 시간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직장에서 장시간 머물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을 가장 앞당길 수 있다고 기대되었던 맞벌이 부부, 남성들이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맞벌이 부부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가사·보살핌 노동분담을 둘러싼 언쟁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경제적 자원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게 친족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한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이모, 시고모들은 상당한 비용을 받고서 기꺼이 자녀들의 가족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담당해주고 있다.

시간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산층 맞벌이 주부들이 ‘경제적 동맹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합리적으로 기획해가는 가운데 핵가족의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혼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도 부부관계에서 정서적인 친밀함보다는 경제력이 특권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여성배우자가 남성을 간통으로 고소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⁵은 남성배우자의 혼외관계, 간통이 감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부간의 배타적 성관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남성배우자의 혼외관계, 간통이 더 이상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는 변화된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5. 최근 20여 년 동안 법무부에 간통으로 접수된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14,515건(1990년), 15,786건(1995년), 12,494건(2000년), 8,504건(2005년), 3,804건(2010년), 3,957건(2012년)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내부자료, 2013).

3.

기획되어가는 가족 vs 해산되어가는 가족, 가족 밖 사랑의 확산

최근 세계적인 경제변화와 함께 한국가족의 변화라고 한다면 가족관계의 구성이 계획·관리라는 기획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노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족의 여가 생활도 ‘기획되는’ 한 영역이 된다. 2003년부터 한국사회 일부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일제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여가 시간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일주일이라는 단위시간은 ‘주5일(직장생활)/ 주말(가족시간)’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관리 시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여성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한 전문 관리자의 역할에서 좀더 나아가 ‘경영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재구조화되고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가족을 지배하는 가치·규범은 생산성, 효율성, 합리성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가족은 무한경쟁 사회에 뛰어들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사^{戰士}를 양육시키는 곳이자 고도의 계획·관리가 이루어지는 기획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부간 친밀함의 핵심이 높은 자녀교육비와 주택 비용 등에 기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가 되어간다.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관계는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재구성되면서 섹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 정서적 친밀함과 대화, 가사노동 분담 등은 가족의 경제력, 자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부의 가족전략에 의하여 밀려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맞벌이부부 관계는 ‘경제적 동맹자’로서의 성격, 중산층의 외벌이부부 관계 역시 ‘동업자 혹은 동맹자’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해가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가족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고 시간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가족관계를 계획·관리할 (학

력·친족·문화 등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10년 동안 총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하는 가족은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 가족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부폭력 발생률⁶은 2004년도 44.6%, 2007년도 40.3%, 2010년도 53.8%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실시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69.1%로 나타나, 내국인 부부의 부부폭력 발생률(53.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에서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사건의 신고율이 10%에 불과하고 친족 성폭력은 더욱 은폐되는 특성⁷을 보이는 점을 참고하면, 가족 내 약자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 친족에 의한 성폭력 발생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중산층 이상의 가족은 자본주의의 합리성, 생산성 요구에 맞게 더 기획되어가고, 가족이 동맹자적 관계라 할 때 그 핵심이 되는 ‘경제력’이 부족한 기층가족은 폭력 등으로 해산·재구성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 보이는 ‘기획되어가는 가족’ 현상 역시 가족이 도구화되어 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기층 가족 역시 폭력과 해산 등으로 아프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느 계층을 불문하고 현대인들의 내면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불안을 경험한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혹은 일자리를 찾아 먹고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족의 의미 변화와 함께 ‘사랑’은 불안을 잠재우고 부

6. 부부폭력은 지난 1년간 발생한 부부사이에 발생한 폭력을 나타내는 말이고, 전체 부부폭력율은 남편의 아내폭력과 아내의 남편폭력에서 상호폭력을 제외한 수치이다.
7. 친족성폭력은 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의미되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가해자를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의미는 한 집안의 생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가족관계가 해체(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 부부관계는 이혼으로 종료될 수 있음)될 수 있기 때문에 친족성폭력은 더욱 은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관계에서 찾기 어려운 정서적 위안을 공급해주는 오아시스로 의미부여된다. 더군다나 1999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이용과 휴대폰 가입, 그에 따른 각종 동창회 사이트의 개설과 국민 모두 휴대전화를 갖게 된 현상들은 기혼자들이 자기만의 사이버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소위 ‘블루천국’이라 불리는 데 이바지하였고, 그것을 반영하듯 여기저기 수없이 생겨나는 러브호텔은 혼외관계에서 애정, 친밀함(intimacy)을 추구하는 기혼인구가 많아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중심의 가족은 ‘프로젝트화된 가족’으로서 계획·관리되며 기획되고 있고, 가족관계의 도구화 속에서 불법적인 친밀함(illegal intimacy)이 확산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가족을 포함한 전 사회가 애정 있는 생명공동체로 거듭나야

가족(家族)은 사회의 기초단위가 아니다. 가족 그 자체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최근 가족의 변화를 한마디로 ‘위기(crisis)’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늘 위기로 의미되었지만, 사실 가족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더 큰 사회가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학교사회, 지역공동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가족은 가족복지로 그 기능을 대체해야만 하였고, 가족에서 아동과 장애인을 돌보고 노인을 수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했던 사람은 여성이었다. 다름 아닌 여성의 희생으로 가족, 학교사회, 지역공동체, 국가가 위태롭게 유지·재생산되어왔던 것이다. 최근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산층 이상의 핵가족은 기획된 가족으로 보수화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층가족은 해산될 위험을 안고 있는 가족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 두 가족은 가족의 형태로 본다면 유지·해체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관리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 할아버지의 관리·경제력에 의한 기획상품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층가족의 아이들은 애정 어린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다양한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부부폭력은 심각한 수준이고 내국인 부부관계에서도 부부폭력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가족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고 일부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는 가사노동을 둘러싼 갈등을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든 여성이 해결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여 가족을 용기 있게 구성하려고 할까? 경제적 동맹자라는 부부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혼제도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결혼 미루기 혹은 결혼 기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가입여성들의 평균 자녀수로 계산되는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점점 드물어지는 것이다. 전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생산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족을 포함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가족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 일터의 문화, 지역공동체, 국가가 모두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가족정책이라는 것은 노동정책, 교육정책, 여성정책, 지역정책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무한경쟁 사회에서 아동의 원초적인 에너지, 생명력까지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기획 가족에서 삶의 불규칙함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따뜻함, 사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인 ‘생산성 있는 아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벌과 학력 차별이 철폐되어야만 가능하다. 한국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점점 취업문은 좁아지고 청년실업은 심각해지면서 대입경쟁, 취업경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터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및 처우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만 한다. 또한 일터에서의 문화와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도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려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력과 학벌과괴가 조금씩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노동뿐 아니라 문화, 여가, 예술활동에서도 노동가치에 걸맞는 임금이 보상

된다면 직업에 따른 위계 또한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이상의 '기획된 가족'은 친족연계망에 기댄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아동·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층민들은 친족관계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아동보육, 방과 후 보육·교육과 노인복지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은 1990년 이후 해마다 증설되어 2011년 3만9천842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005년 883개에서 2011년 638개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연령(12세 이하)과 이용시간(연 480시간 한도 지원)에 제한이 있고, 지역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루 한 시간 이상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 또한 29.6%(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중 97만 명으로 계산)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영아전담 포함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의 인프라를 갖추고 방과 후 보육·교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 돌봄, 그리고 노후 소득보장, 연금과 의료시스템 등 사회안전망도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적 사랑'의 횡행 속에 가족은 단지 자녀를 관리·기획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자 관계로 유지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참고 살며 핵가족을 명목상 유지하는 행위야말로 가족을 생명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가족구성원들끼리 애정 어린 관심과 돌봄이 살아나고 가족 내 폭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애정과 생명력이 사라진 부부관계의 원만한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이혼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편견과 정상가족the Family 이데올로기⁸, 이혼 후 겪게 되는 경제적 고통이 이혼 당사자들과 자녀들에게

8. 부모(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역할이 내재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족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가족형태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념체계.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를 '유책주의'⁹에서 과탄주의¹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주택 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가족사회, 학교사회, 지역공동체,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의식·가치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의 성격이 결정된다. 아동과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보호해주고 상호존중과 배려가 배어드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차별, 억압과 폭력이 없는 가족이 될 것이다. 또한 평화로운 가족은 전 사회를 생명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김원정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첫 번째 워크숍 발표자료, 2013. 7. 12.
박지영 『가족화 사회의 시간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양현아·김용화 『혼인, 섹슈얼리티(Sexuality)와 법』, 경인문화사.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2010.
이안나 『"모델 이야기":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생들의 모델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여성학연구』, 제23권 제1호(2013. 2),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3.
조주은 『기획된 가족』, 서해문집, 2013.
최명수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혼인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유책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원칙·권리남용금지·금반연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최명수,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그 잘못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상관없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이미 형해화 된 혼인관계를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음이 애정과 신뢰를 기초한 혼인의 본질에 반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대 이혼법의 입장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글을 쓴 조주은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에서 여성·가족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획된 가족』,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현대가족이야기』 외 다수의 연구논문과 보고서가 있다.



가족: 신화와 신앙 사이

구미정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1. ‘가족’의 맨얼굴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 한국의 가족은 IMF 이전,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88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복잡다단한 사회적 변수들에 영향 받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3대 이상 모여 사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이룰데면 <왕가네 식구들> 같은 주말드라마에나 나오지, 대부분은 ‘핵가족’도 모자라 ‘기러기 가족’이니 ‘1인 가족’이니 하는 다양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내용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 데는 사실상 사회의 하부구조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직업, 결혼 등 개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계기가 이제 더 이상 좁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지 않게 된 마당에, 가족의 모습살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아래 전 지구가 재편되어 삶의 환경이 지극히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위기’ 담론이 언제나 여성에 대한 비난을 동반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위기’라는 단어에 잠시 눈길을 돌려보자. 가족 형태의 ‘변화’를 ‘위기’로 체감하며, 그 위기를 조장한 장본인으로 여성을 지목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전통적인 확대가족을 이상화하면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된 것도 소위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한 탓으로 돌리고, 핵가족이 해체되어 싱글족이 늘어난 것도 요즘 여자들이 무책임해서 방종한 삶을 즐기고 싶어 그런 거라고 싸잡아 말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남편이 밖에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것,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딴 짓에만 정신이 팔리는 것, 노인들이 애완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 이혼률의 급증, 고질적인 저출산 현상, 이 모든 가족 ‘위기’의 증후들을 ‘망국’의 징조로 부풀리면서 오로지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옛날 어머니들은 꼭 참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서 가족을 굳건히 지켰는데, 요즘 여자들은 되바라지게 자아실현 한답시고 밖으로만 나다니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혀를 끌끌 차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발상의 밑바닥에는 ‘남성=공적 영역=생계부양자, 여성=사적 영역=전업주부’라는 성별 분업 공식이 한 몫을 담당한다.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남편이 가정에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점유하는 것, 그리고 가사와 육아, 노인(시부모) 부양 등 이른바 ‘살림’을 담당하는 아내가 남편의 내조를 잘하는 것, 이 원칙만 잘 지켜지면 원만한 가정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가정을 사회와 유리된 폐쇄공간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낭만적이다. 또한 가족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적이다. 나아가 오로지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가족 모델을 이상화하여 그것의 상실을 위기로 진단한다는 점에서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모든 위기 담론이 마찬가지로겠지만 가족 위기 담론에서도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선불리 위기를 선언하기에 앞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무엇이 위기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되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의 위기가 단순히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특정’ 가족 모델의 붕괴를 의미하는 한, 이것은 사실상 위기라기보다는 변화로 읽어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오늘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위기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변화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거 사회를 지탱했던 소위 정상 가족 모델을 엄두에 두고 오늘의 가족을 보기 때문에 복고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마련이지만, 후자는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가족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기 때문에 열린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가족 위기론자들이 붙들고 있는 가족에 대한 '신화'를 해체하고, 예수가 가르친 가족 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2. 예수의 가족관과 기독교 전통의 변용

여성신학자 류터Rosemary R. Ruether는 오늘을 위한 가족 가치를 재발견하려면, 우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이를테면 '돈 버는 남편과 살림하는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규범적인 가족normative family'이란 허구일 뿐이며, 가족 다양성은 이미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단일모델로서 근대 핵가족 이데올로기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던적 가족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터에 따르면, 오늘날 기독교 우파에서는 남성을 머리로 하고 여성이 그에 복종하는 형태의 가부장적 가족 모델을 '성서적'이라고 우겨대지만, 실제로 이 모델은 성서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성서 속에서 예수는 기독교 우파의 기대와 달리 '반가족anti-family'의 관점을 종종 드러내기 때문이다. 공관복음은 예수운동이 대체로 자신의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반문화 공동체로 모여든 주변부 남녀들의 모임이었다고 묘사한다. 한 보기로, 마태복음 4장 21-22절에 보면, 예수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자,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자연적 혹은 혈연적 가족을 부정하고 새로운 종말론적 가족을 표상하였던 것이다. 예수의 제자

가 되려면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예수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되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눅 14:26)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려 왔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마 10:35-37)

이렇게 말하는 예수도 역시 자기 가족을 버렸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눅 2:49)라고 부모에게 당돌하게 말하는 열두 살 예수에게서 출가出家의 의지가 엿보인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막 3:33-35)"라고 하신 예수는 과감히 '새 가족'을 향해 나아갔다.

예수는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모두 밥상공동체의 식구食口로 불러 모았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친족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새 가족은 기존의 가족체제에 대항하는 반문화적 특징을 띠었다. 엘리자베트 피오렌자Elisabeth Schüssler Fiorenza는 이 새 가족이 "평등한 제자적 공동체"로서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상대화하고 무력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복적인subversive' 가족관은 예수 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희석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의 사회적 위계질서를 뒤엎고, 여성과 어린이, 노예에 대한 지배를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부들은 희랍철학의 영/육 이분법을 가지고 가부장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문제 해

결을 도모했다. 그리하여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독신남성 집단 - 독신여성 집단 - 결혼한 평신도 집단’으로 계층화된 삼층 구조의 가족 모델이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전통에 들어있던 모호성, 곧 성례전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긍정과 성^性에 대한 금욕주의적 거부 사이의 부조화를 인식하여, 양자 모두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갔다. 결혼은 성사^{聖事}라기보다는 창조와 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또한 결혼 내에서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예속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로 재해석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회복을 주장하고 나선 기독교 우파의 주장은 가부장적 가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질서로 본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결혼·가정·가족을 낭만화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산업혁명으로 달라진 생활상, 더욱이 생산과 교육, 보건과 종교 활동 등이 가정 밖의 기관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가족은 사회 안정을 위한 안식처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에 교회는 가족을 ‘천국의 선취’라는 표상으로 이념화했는데, 여기서 아내는 ‘천사 같은’ 가정 사역자로 이상화되었다. 여성은 무성적^{無性的}으로, 즉 동정녀 마리아의 화신으로서 자기주장이나 요구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류터는 오늘날 ‘붕괴’된 것은 바로 이러한 낭만화된 가족형태이지, 가족 그 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고대 노예제부터 빅토리아적 핵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 가부장적 가족은 인간의 구성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고대에는 주인, 곧 지배 남성이 여성과 어린이, 노예 위에서 억압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면, 빅토리아 버전^{version}에서는 돈 잘 버는 남성이 천사 같은 아내를 집안에 묶어두는 양상으로 바뀌었을 뿐, 가부장적 가족모델의 기본 개념은 같다는 것이다. 그 개념이란 남성 생계부양자를 갖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을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종교적 비난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모델이야말로 “다수의 정의와 안녕을 저해하는 악마적 왜곡”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세계의 원리와 권력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류터는 강조한다.

3.

에코페미니즘 시각에서 보는 가족

그렇다면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족을 위한 새로운 윤리적 처방은 무엇이어야 할까? 창조와 구속, 육체와 영혼, 결혼과 독신, 여성과 남성, 가족과 직장, 사랑과 정의 사이에 넘지 못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를 역동적 상호관계로 매개할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에 필자는 에코페미니스트 관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일차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반자 관계 안에서 서로 온전한 인간성을 누리고 충분한 생명력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성 정의^{gender-justice}를 바탕으로 사회 및 생태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복지를 지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총체적 변혁의 단초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에코페미니스트 윤리의 전망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일은 우선 현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정상가족만을 환영하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틀 자체를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해줄 때 동시에 소외된 가족 형태를 끌어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에코페미니스트 전망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가족은 생명을 이어나가는 창조의 리듬 안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들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는 일 중독을 부추기는 삶의 양식에 저항하는 것,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를 꿈꾸는 것,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른 맞춤형 가족 정책으로 정부가 지속가능한 가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너머로는 아무 것도 관심하지 않고 아무 것도 나누지 않는 가정이란 고여 있는 물과도 같다. 살아 있는 가정은 가족 단위 안팎에서 역동적으로 살림의 자원들을 나누며 생생하게 순환한다. 가족은 무엇보다도 같은 집^{oikos}에서 살림살이^{economy}를 공유하는 하나의 단위, 곧 유한한 자원을 지혜롭게 나누어 쓰며 모두 함께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고 공동부양하는 생명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때, 하나의 가족은 지구라고 하는 대가족의 하부구조

로서, 지구의 건강까지도 염려하고 보살피는 영성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곧 가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직임에 틀림없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가족은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가족’은 자연발생적인 다양한 경험으로서의 가족이지, 제도나 이념으로서의 추상적인 혹은 획일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오늘날 가족이 해체 위기에 처해있다는 평가는 어디까지나 후자와 관련된 것이지, 전자와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교회는 본래 메시아적 잔치를 미리 맛보는 대안공동체로서 출발하였기에, 사회변혁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제 이 땅의 교회는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가치를 제시해야 할 시대적 요청 앞에서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이 땅의 가족들이 가부장적 가족 규범이라는 죽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살림 가족을 향해 출애굽을 단행할 때이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몰라 서성대는 가족들에게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들테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만 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은 ‘정상가족’의 기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심지어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서 세속적 부계혈통주의와 철저히 단절된 모습을 띠고 탄생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나치게 가족주의를 옹호한다든지, 또는 빈번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에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일은 그로 인해 상처받을지 모를 심령에 대한 소외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가족주의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로즈마리 류터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법적 계약(contract)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covenant)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교회는 세속적인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족윤리를 제시하고 생명문화를 전파할 사명을 지닌다. 한마디로 오늘의 교회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가족을 구성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성례전적 결속과 구속적 약속에 이르는 더욱 깊은 관계로 인도해줄 영성과 윤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의례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

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언약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스스로를 재확인해 나가는 인생 여정에서 풍요로운 의미를 더해줄 수 있도록 목회적 고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적 진리는 모든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학적 믿음과 별개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원치 않아도, 소위 정상가족이 비정상가족과 분리된 채로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공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개념과 의미를 그 양적인 측면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정상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로 재정의될 때, 그리하여 ‘정상적인’ 가족의 외연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족의 내연임이 재강조될 때,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족 담론은 보다 윤리적이 될 것이다.

4.

살림 가족의 탄생

끝으로, 무너졌던 가족이 새롭게 재건된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재해석해 보자. 이 사례는 성서관 ‘가족의 탄생’이라 할 만한 것으로, 살림 가족이 세워지는 원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룻기의 도입부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전쟁드라마도 아니고 멜로 드라마인데, 첫 회에 벌써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죽어버린다. 시작이 너무 암울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처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했다.

“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룻 1:9-12)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죽어버렸다. 울타리도, 바람막이도 다 사라졌다. 허허벌판에 오롯이 남은 세 여자. 서방 잡아먹었다고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은 팔자 사나운 여자들이다. 고부(姑婦) 관계란 본래부터 타고 나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혈연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이기에,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서로를 묶을 필연적인 구실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억지로 엮으려고 별별 구실을 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많건만, 나오미는 달랐다. 욕심 같아서는 끝까지 시어미를 부양하라고, 이 집 귀신이 되라고 붙잡고도 싶지만, 그러자니 며느리들의 남은 삶이 너무도 가엾다. 무슨 권리로 이들의 푸르른 삶을 저당 잡는단 말인가? 욕심을 접자. 마음을 비우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딸’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남이 아닌 나의 연장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며느리 중 오르바는 친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나쁘다거나 이기적인 여자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뿐이다. 나오미는 그런 오르바의 선택을 존중해주며 입맞추고 축복해준다. 하지만 룯은 달랐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 1:16)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시어머니 곁에 꼭 붙어서 살겠다. 당신과 내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란다. 혼인서약처럼 성스럽고 단단한 결심이다. 룯이라

는 이름의 뜻이 ‘친구’라면,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렇듯 불이(不二)의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 자기를 비운 자리에 상대방을 채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법이다. 자기를 비운 만큼 상대방의 자리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많이 비울수록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겠다.

나오미가 자기를 비우니, 룯도 이에 화답한다. 둘 사이에 우정이 생기니, 상하관계가 수평관계로 변혁된다. 룯을 보아스와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은밀히 작업을 벌이는 나오미의 정체는 친구이지, 시어머니가 아니다. 심지어 룯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로 불릴 정도다. (룻 4:17)

이쯤 되면 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나오미 안에 룯이 있고, 룯 안에 나오미가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듯이(요 10:28 참고).

성서는 룯의 아들 이름을 ‘마을 아낙들이’ 지어주었다고 보도한다. 룯과 나오미를 향한 동네 사람들의 애정이 어떠했는지 알 것 같다.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자매애로서 서로를 대등하게 보살피고 배려하는 새 가족의 모델을 세웠더니,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진 모양이다. 서방 ‘잡아먹고’ 아들들까지 앞세워 보낸 박복한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귀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입방정이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와 룯이 일군 살림 가족의 새 모델은 사람들에게 호감 이상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사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살림 가족은 무엇보다도 ‘제도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지혜의 산물일 것이다. 가족의 ‘정상성’ 내지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관계의 질(質)이다. 그 관계가 룯과 나오미처럼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연민과 우정의 패러다임 위에 기초해 있는가, 혹은 호세아서에 나오듯 정의, 공평, 사랑, 긍휼, 성실(호세아 2:19 참고)이라는 다섯 가지 혼인 예물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살림 가족의 중요한 잣대일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모델을 넘어 새로운 살림

가족으로 이행하기 위한 진통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세상 법이나 제도의 수호자로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보여준다면, 교회의 사회적 위상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살림 가족을 향해 출애굽 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교회는 풍부한 신학적·윤리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길라잡이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구미정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족담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 한 에코페미니스트의 관점』, 『신학논단』 62집(2010), 7-30쪽.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서울: 한울출판사, 2005).
 『한 글자로 신학하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서울: 옥당, 2012).
 엘리자베스 S. 피오렌자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신학적 재건』, 김애영 역 (서울: 종로서적, 1986).
 Rosemary R. Ruether Christianity and the Making the Modern Family (Boston: Beacon Press, 2000).

글을 쓴 구미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 기독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생태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신학과 윤리를 재구성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와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도 재직 중이다. 저서로 『한 글자로 신학하기』, 『호모 심비우스』, 『핑크 리더십』, 『아이로 원숭이를 만나다』,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이 있으며,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 『영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등의 공저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외 다수의 책을 번역했다.



‘너의 외모를 개조하라’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여성의 몸

권수현 / 연세대학교 강사

1. 미용성형의 일상화/정상화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미용성형 시장 규모가 크게 확장되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졌다. 이제 미용성형은 마치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소비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튜닝’이라는 단어의 사용례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원래 자동차나 오디오 따위의 일부분을 개조하는 것을 의미했던 이 단어는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쌍꺼풀, 코 성형, 보톡스, 피부레이저, 지방흡입/이식 등을 통한 외모 개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한편으로는 반복적 미용성형으로 인해 외모가 심하게 변형된 사람을 ‘성괴(성형괴물)’라고 부르며 폄하하는 양상이, 다른 한편으로는 미용성형을 자신이 갖지 못한 신체 부위를 구입하는 소비 행위로 인식하는 양상이 공존한다(태희원 2010, 97). 이 두 가지 양상은 모두 ‘미용성형의 일상화/정상화(normalization), 즉 평범한 개인들이 미용성형의 소비자가 되어 일상생활이 미용성형 시장질서의 지배를 받는 현실 속에서 출현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한국은 미용성형의 소비가 일상화된 ‘성형왕국’이 되었는가? 왜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이 상당한 부작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미용성형의 주요 구매자인가? 미용성형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사회의 미용성형 현상의 특징과 이를 추동하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제를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자기계발 혹은 치유로서 미용성형

풍경1.

이제 대학 들어가는 새내기 여학생이에요! 최근에 졸업식 전에 친구들을 다 같이 한번 만났는데, 다들 성형을 조금씩 해서 왔더라고요. 쌍꺼풀은 기본이고 앞트임, 뒤트임, 코 등등 다양하게 했는데, 보면서 사실 좀 놀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성형 많이 하긴 하는구나 하구요. 그런데,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막 괜히 내가 뒤쳐지고 더 못생겨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저도 어딘가 고쳐야 평균은 될 것 같고 막 그런 초조함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티가 나든 안나든 다들 과거보다 예뻐져 있고, 저는 그대로인 것 같고, 하여튼 솔직히 좀 기분이 그랬어요. (중략) 수능 끝나고 돈 걱정 말고 강 수술이나 할걸, 괜히 안한다고 하다가 친구들 보고 초조해지고 그러네요. (2014.02.11. 네이트 판 20대 이야기 게시판에 등록된 글 「수능 끝나고 성형 안했더니 초조해요」 중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여성들이 고민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은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의 정상화’가 도를 넘어섰으며, “너의 외모를 개조하라”는 압력이 전에 없이 거세어졌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왜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성형왕국’이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형수술과 같은 외모 가꾸기 혹은 개조 현상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미용성형 선택 동기와 그 실천 방식은 그것을 추동하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공명하면서 형성된다. 예나 지금이나 미용성형의 주요 동기는 여성들의 예뻐지고자 하는 욕망이거나 외모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미용성형을 둘러싼 여성들의 서사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감지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케이블 방송의 각종 메이크업 프로그램, 미용성형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사회의 미용성형 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용성형을 둘러싼 여성들의 서사에서 ‘투자’, ‘관리’, ‘도전’, ‘용기’, ‘최선’, ‘노력’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은 자기관리,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일종의 ‘스펙 쌓기’ 과정에 포함되었다. 예전에 미용성형은 자신이 원하는 외모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일회적 구매 행위에 그쳤다면, 이제는 단순한 외모의 변형이 아니라 바람직한 자아 혹은 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몸 만들기’ 과정이다.

둘째, 미용성형이 그 자체로 자기치유로 인식되거나,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치유가 하나의 미용성형 문화로 자리잡게 된 현상이다. 미용성형을 자기치유로서 설명하는 서사적 변화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미용성형이 개인적 차원에서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이나 수치가 아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소비문화에 포섭되었다는 것, 미용성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위험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는 것, 여성들이 그러한 폭력적 상황을 감내하면서까지 미용성형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미용성형이 여성들에게 상당한 용기와 ‘도전정신’을 필요로 하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케이블 방송의 메이크업 프로그램 출연자가 미용성형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도전!”을 외치고, 방청객은 눈물을 글썽이며 갈채를 보내는 장면,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양악수술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셋째, ‘여성 전용’ 성형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미용성형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몸 관리 행위임을 시사한다(태희원 2010,

112). 미용성형에는 상당한 위험 또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 여성들은 미용성형 준비 단계에서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형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성형 수술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미용성형을 준비하고 성형수술 전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받는다.

넷째, 미용성형이 일상화되면서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성들로 하여금 미용성형을 선택하게 하는 핵심 정서로서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 연구 자료에 제시된 인터뷰 내용에서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자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다. 원래 성형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주변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미용성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 손해 보는(뒤처지는) 느낌”, “초조해 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미용성형을 한 사람에게 더 나은 취업 및 결혼의 혜택이 주어지고 미용성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기회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에 없이 마치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다.

3. 외모로 인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

풍경 2.

30대 초반입니다. 입 꼬리 올리는 수술과 종아리 신경차단술을 하고 싶어요. 두 군데 다 막 미운 건 아니고 아쉬운 정도인데 몇 년 간 맘고생을 심하게 해서 저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2013년 12월 27일 “82cook.com”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글 중에서)

근대 의학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맺는 관계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 인간의 몸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재단되는 옷처럼 변형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맞춤 육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증폭되었다(샤틀레 2002). 의학 기술은 ‘아름다움의 민주화’를 가능케 했고, 인간에게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실현 가능한 꿈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미용성형 열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아닌 ‘차별’, ‘배제’라는 키워드가 적절하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한 ‘너의 외모를 개조하라’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 여성들은 왜 외모가 자신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믿음, 외모 결정론의 신봉자가 되었는가? 앞서 살펴본 한국의 미용성형 문화는 여성들에게 외모로 인한 구체적인 차별과 배제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된 것이지, 그러한 차별과 배제에 여성들이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모로 인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 중에서도 현재 한국의 20대가 놓인 상황은 기성세대로서 뒤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한국의 양악수술 열풍을 조명한 한 다큐 프로그램에 소개된 20대 J씨의 사례는 고용 시장의 외모 차별이 미용성형의 직접적 동기가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SBS 2013a). J씨는 주걱턱인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 외모로 인해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었고, 면접에서는 “예쁜 사람을 뽑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미용성형을 조명한 자료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아니라 외모를 통해 누군가 더 좋은 기회를 얻거나 배제되는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여성들은 입사 면접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외모가 고용의 결정, 커리어의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경험 속에서 ‘맘고생’을 반복하면서 경력 관리의 일환이자 생존 전략으로서 외모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 시장에서도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는 외모 개조 압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직군이다. 그 중에서도 고용 시장 위계에서 가장 낮고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20대 여성들이 이러한 압력에 가장 취약하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최근 많이 찾는 수술이 ‘입꼬리 수술’이다. 입꼬리 주변의 근육을 절개하여 평소에도 밝게 미소 짓는 인상을 만들어준다는 이 수술은 요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이 받는다고 한다(SBS 2013b). 기업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이 ‘고객은 왕’이라는 노동 규범이다. 이러한 문법이 지배하는 노동 조건 속에서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할 수 없는 상전이며, 종업원은 고객의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존재다. 한국에서 젊고 아름다운 외모, 미소 짓는 얼굴, 친절함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당연한 요구이며 차별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는 상처는 노동 환경 안에서 정당한 출구를 통해 언어화되기 어렵고, 서비스 경제의 가장 낮은 곳에 편입되고 있는 여성들은 밀려나지 않기 위해 성형수술을 감행하게 된다. 이른바 지위보호막^{status shield}이 취약한 그들에게 성형수술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외모가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외모를 매개로 하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외모가 공공연하게 인간으로서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까지 확장되는 현상이다. 한국은 ‘못생긴 게 죄’가 되는 사회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외모’를 갖춘 사람은 ‘훈남’, ‘훈녀’로, ‘착한 얼굴’, ‘착한 외모’를 가진 존재로 언급된다(김고연주 2010, 160). 한편 뚱뚱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외모’의 소유자는 비하의 대상이 되거나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심지어 ‘안구정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오염된 존재로 언급된다. 기실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의 기저에는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여성들은 미용성형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미용성형의 주요 소비자이자 미용성형 문화의 생산자로서 자리 매김하게 된다.

4.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와 여성의 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미워지는 전쟁 같은 내 고향에 살고 있다면 (중략) 끝없는 자기혐오와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저를 봐서라도, 한번쯤 떠나고 싶다는 욕망을 애써 숨기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팔자가 좋지 못해서, 난 선택지가 없었어! 라는 가없는 자기연민으로 젊음에 서늘한 화상을 입히지 마세요. 내가 호~ 해드릴게요. (한 20대 여대생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서)

현대 사회는 전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이다. 서비스 산업 종사자 비중이 고용 시장을 주도하는 ‘서비스 경제^{service economy}’로의 전환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70년대에,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변화는 ‘시장 경쟁이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자유시장 경제 이념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명명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쟁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기초한 독특한 사회문화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이식되었다. 미용성형의 일상화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변화라는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승자독식’, ‘각자도생’이라는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가 지배적 질서가 되면서 출현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사람들이 ‘해고의 공포를 인간 본연의 감정인 양 갖고 살아가는’ 땅이자, 살아남기 위해 혹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닥치고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광기의 사회’가 되었다(오찬호 2013). 이십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 일자리·소득·집·연애(결혼)·출산·희망 등을 가질 수 없다는 ‘육무^{六無} 세대’로 지칭된다. 일 년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한 20대 여대생이 페이스북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미워지는 전쟁 같은 내 고향을 한번 쯤 떠나고 싶었노라”고. 그녀가 남긴 글을 통해 “가없는 자기연민으로 젊음에 서늘한 화상”을 입은 이십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위안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된다.

이십대를 조명한 영상물이나 연구물에서 한국의 전형적인 이십대의 삶은 벼랑 끝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형국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그저 불안을 잊기 위해 도서관에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말한다. 지독한 경쟁을 통해 각자 알아서 살길을 마련해야 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서 끝없는 자기계발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자 불안과 고통을 달래기 위한 진통제이며, 자기혐오로부터 놓여나기 위한 위안이다.

여성들이 미용성형을 자기계발, 스펙 쌓기, 자기치유로 실천하게 되는 배경 역

시 이러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미용성형의 일상화는 ‘못생긴 여성’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주는 도덕적 배제의 문화 속에서,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외모로 인간을 차별화하는 고용 질서 속에서, 차별과 불안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삶의 조건 속에서 잉태된 것이다. 미용성형을 둘러싼 서사를 따라가 보면 고통을 끝없이 참아 내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미용성형은 불안과 고통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마치 아직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마법의 주문, 아픔을 잊고 경쟁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그렇게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5. ‘외모 개조’에서 ‘사회 변화’로 :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죽음을 담보로 수술대로 향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이 열풍에서 다 같이 내려오는 것은 가능할까?
(SBS 스페셜, 2013a. <그녀, 뼈를 깎다 - 내 딸의 양악수술>중에서)

이제 사람들은 성형수술은 가부장제에 공모하는 실천이며,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선언에 설득되지 않는다. 경제적 효율성, 무한경쟁 논리가 한 사회의 핵심 구성원리로 작동하는 한 “너의 외모를 개조하라”는 명령은 지속적 동력을 제공받는다.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불안정성과 불안은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 내재된 필연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김현미 외 2010, 225). 성공을 위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 모두가 무한경쟁 트랙에서 내달리는 질주를 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에서, 불안에 압도된 개인은 자기계발 혹은 자기경영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된다. 양악수술 열풍을 조명한 한 방송 프로그램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SBS 스페셜 2013a). 나 혼자 예뻐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여성들을 괴롭히고 외롭게 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을 죽

음을 담보로 수술대로 향하게 하는 이 땅에서, 미용성형수술 열풍에서 다 같이 내려오는 것은 가능한가?

‘부자’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위치로 간주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최우선적 가치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경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미용성형의 일상화를 추동하는 한국사회의 성별 정치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미용성형의 일상화가 초래하는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주문에서 깨어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집단적 사유가 실행될 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경쟁에 허덕이는 우리 자신, 벼랑 끝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이십대, 자기계발 주체로서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수술대로 향하는 여성들을 낯설게 바라보고 보살피고자 하는 시도, 그것은 이미 곳곳에서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 김현미 외, 2010 『침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 권수현, 2010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 수록처: 김현미 외.
- 김고연주, 2010 『나 주식회사』. 수록처: 김현미 외, 2010.
- 노엘 샬레, 2002 『맞춤육체』. 박은영 역. 사람과 책.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 엘리 러셀 흑실드, 2009 『감정노동』. 이가람 역. 이매진.
- 태희원, 2010 『미용성형의료 네트워크의 재구성 과 소비자/환자 주체의 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SBS 스페셜, 2013a <그녀, 뼈를 깎다 - 내 딸의 양악수술>, 5월 26일.
- SBS 스페셜, 2013b <가면 뒤의 눈물>, 6월 9일.

글을 쓴 권수현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에서 『제도화과정에서 나타난 돌봄 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문화 논리를 통해 이식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좋은 글로 흥익인간이 되는 게 꿈이다.



안전담론을 넘어 성폭력에 맞서기

백미순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사회에서 아동이나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발생 통계와 언론보도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매년 이어지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죽음의 소식은 성폭력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바람직하다. 그러나 성폭력을 안전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안전하지 못한 요소의 철저한 분리와 제거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좁은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성폭력 가해자는 위험그룹이고 이들을 사회에서 철저히 통제하며, 이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지대가 확보될 것이라는 정책과 여론이 실행되고 시민들은 이를 위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들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안전에 대한 관점은 다른 한편으로 보호의 담론을 만들어낸다. 안전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안전 수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하며 부모들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한 지침은 대부분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조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는 데서 기인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맡길 귀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신술 강좌를 개설해왔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조심해야 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역으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 쉽다.

안전은 불안과 두려움을 전제로 한다. 권인숙 등의 2013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여대생의 상당수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성폭력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가 아닌 언론 등의 보도나 사회통념의 영향으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하여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조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결국 안전에 대한 편협한 접근은 시민들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할 우려가 높고, 여성들의 수동적이고 자기검열적인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성폭력의 발생구조와 맥락은 ‘안전’이라는 관점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한 개인의 안전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규범, 가치,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형벌집행의 공정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확보되는 것이고, 성폭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가의 여부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발생빈도 이면의 우리사회의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단서와 여성들의 삶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의 아내 중 한명이(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다) 행음하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도망쳤다. 그 레위인은 그 아내를 데리러 장인 집에 가서 며칠간 머물다가,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집으로 출발한다. 길 가던 중간에 날이 저물어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서 멈추게 되고, 한 노인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한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역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위협한다. 노인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아내를 내어줄테니 돌아가라 설득했으나 불량배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마침내 레위인은 위협을 면하기 위해 이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준다. 불량배들은 여인을 강간하고 밤새 능욕한 후 놓아주고, 동틀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있는 집에 이르러 문지방에서 쓰러진다.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다 아내를 발견하지만 아내는 숨을 거둔 후였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의 내용이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아내를 내어주겠다고 한 노인, 자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의 성적 유린의 대상으로 아내를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생사를 확인조차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레위인, 보호할 어떤 수단도 가지지 않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불량배들, 사사기 19장을 현대적 시각으로 읽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서 성폭력의 보편적 특질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은 구약성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양상을 달리하며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여성이 그러한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집단이나 사회에서 취약하고 힘이 없는 차별적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는 유연히 마주친 범죤자이기보다 친족을 포함하여 잘 아는 사람, 이웃집 등 주변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쉽다는 점 등이다.

성에 근거한 폭력은 여성을 존엄한 인간이 아닌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여기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행사

를 용인하는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발생한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문화, 관행이 성폭력이 묵인되거나 정당화되면서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되고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없는 주변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여성은 대부분 사회적인 역량이나 권한을 강화하지 못하고 사회의 위계질서의 아래층을 벗어나기 어렵고, 결국 또 다시 성폭력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노인의 딸이나 레위인의 아내인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처분에 맡겨진 무력한 존재일 뿐이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한 취약한 집단이다. 이들은 남성들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으로 내던져질 수 있는 존재들이며, 이렇게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성폭력에 저항하거나 성폭력에 맞설 역량을 갖추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3.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시대를 가로지르는 성폭력의 보편적 특질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 현황을 보면 상황이 보다 명확해진다. 검사에 의한 기자 성폭력사건, 상사에 의한 성폭력으로 자살한 여군대위사건,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인턴 여성을 성추행 했던 대변인사건, 기획사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으로 자살에 이른 보조출연자 자매사건 등 근래에 발생했거나 공론화되었던 사건에서부터 성폭력상담소에 끊이지 않는 상담 사례까지 근본적으로 성폭력은 연령이나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가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취약한 여성이 손쉽게 피해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의식의 산물이다.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만1천346건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하루에 58.5건, 한 시간에 2.4건이 발

생한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신고율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건수는 20만 건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성폭력 관련 통계에서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 내외이다.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교육, 보건의 네 가지 지표로 측정하여 사회 내에서의 여성지위를 보여주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36개국 중 111위이다. 이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 왜 성폭력이 왜 그렇게 빈번하며 여성이 주로 성폭력 피해를 겪게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폭력사건을 대할 때 접하게 되는 ‘기자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피해를 당하나’, ‘사건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같이 즐긴 것이다’, ‘피해자가 유혹했거나 혹은 너무 예뻐서 유혹당했을 것이다’는 등등의 피해자에 대한 통념과, ‘아버지가 딸을 그랬을 리 없다’, ‘정신병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멀쩡한 직장인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용서할 만하다’는 가해자에 대한 통념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권력관계를 무시한 결과이다.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나이, 인종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소가 결합하여 더 취약한 측이 정해진다. 검사이든, 기자이든, 교사이든, 공무원이든, 군대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구성원의 신분이나 조직의 차이를 불문하고 누가 연령이 많으며 지위가 높은가, 성별이 어떠한가, 누가 정보나 경제력, 인사권 등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되는 위계가 생기고, 취약한 존재는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대응이 가져올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는 특정한 그룹의 피해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성폭력 상황에 동의했다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유혹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밤늦게 술자리에 남아 있었다거나 옷차림이 어떠했다거나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없다.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저지러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없으며,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그건 피해자 책임이 아니라 모두 가해자 책임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에 만연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은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을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없도록 한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에 맞닿아 있다. 성폭력사건 판결문에는 성실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서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성폭력 가해자는 특정한 성 기호를 가진 위험한 피물이 아닌 피해자 주변의 평범한 남성들이다. 2013년에 발간된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후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가해자인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목사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호소해도 자신의 말보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체념한 채, 수년 간 성폭력을 견뎠다. 성폭력 가해자는 다른 어떤 범죄의 가해자보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는 동정을 받고 있고,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은 물론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에게 피해자보다 훨씬 이해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라도 받을라치면 그들의 평소 행실을 이유로 형량을 배려받는다.

그동안 언론에 의해 보도된 성도착자나 성범죄 전력자에 의해 자행된 일부의 극악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강조와 처벌 강화는 일상적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성폭력을 가려버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3년 상담통계를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약 85%이다. 세간에 알려지는 끔찍한 사건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범인이 처벌을 받지만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비율도 높지 않다. 2012년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2만1천259건의 성폭력 범죄 중 타인인 경우가 53%를 차지한다. 이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데 미성년대상 성폭력사범 기소율도 43% 정도이다. 기소건수 중 집행유예 비율도 40% 내외이다. 작년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성인여성의 67%, 여중고생의 68%가 성폭력 피해로 불안하다고 답변했다. 성폭력 피

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이유로 성인 응답자의 63%, 학생 응답자의 77%가 가해자 처벌이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전문가 응답자 82%는 예방교육 부족 및 잘못된 성인식을 꼽았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처벌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가해자를 엄벌하고 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가해자들의 처벌 가능성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4.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따라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과 성폭력의 실상,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의 편견과 통념을 직면해야 한다.

지난 해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다 못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기도 했던 피해자는 군대의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공적인 과정을 통해 피해를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 때 발생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개인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군대가 성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를 자문할 때, 군대가 과연 여성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대우하는 조직인가, 군대 내 고위직의 비율과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가, 구성원들의 성인식이나 감수성은 어떠한가, 누구나 부당한 차별대우와 성폭력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차별대우와 성폭력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문제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제기했을 경우 피해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가해자는 적절하게 처벌받는가, 피해자가 비난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가,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가, 피해자를 더럽혀진 사람 취급하지 않는가 혹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등등의 점들을 고루 살펴야 한다. 그래야 안전 여부도 보이고 안전하기 위한 대책도 보인다.

안전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여 구성된 성폭력 대책은 정부의 힘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 시민사회와 공동체, 그 구성원, 기업과 언론이 각기 성찰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안전이 성취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늘 염두에 두고 살 수도, 두려워하고 살 수도 없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을 100% 예방하기도 어렵다. 남성 일반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며 살 수도 없다. 여성이 두려움을 주체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성폭력을 경험한다 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성폭력을 다른 범죄 피해와 같이 여겨야 한다. 성폭력이 개인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식되는 것을 여성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안전담론을 넘어 여성의 내부와 외부에서 두루 진행되는 혁명이 필요하다.*

글을 쓴 백미순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서 성폭력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YWCA연합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 정신없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과 생활, 책과 영화를 주제로 수다 떠는 여유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평등하고 성폭력이 줄어든 사회를 꿈꾸고 있다.



의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 보조생식술을 중심으로

김명희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1. 들어가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재생산을 담당하는 생식기의 구조적 기능적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식기의 차이 이외에도 많은 신체적인 구조 및 조건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한 신체적인 차이들도 결국은 생식기능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각종 호르몬의 역할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 여성과 남성의 원래적 '다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생식을 위한 다름인 것이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재생산에 있어서 수태와 출산이라는 핵심적이고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늘날의 인류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성이 아이를 수태하고 출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생산에 대한 의무를 강요당하고 재생산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이고 현실이었다.

현대 의과학의 발달은 수정에서부터 출산까지의 전 과정을 낱알이 파헤쳐서 재생산에 있어서의 역할과 원인을 밝히고 성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드디어는 시험관아기의 출생을 가능하게 하였다.¹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은 발전한 의과학의 덕분에 재생산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까?

보조생식술의 발전은 재생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아이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현대의학의 보조생식술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을 이루도록 하는 마지막 방법인 양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보조생식술에 있어서 여성의 몸은 단순히 생식을 위한 도구로서 여기고 있으며, 의학은 여성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성의 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보조생식술은 난임부부가 원하는 아이를 얻게 해주기도 하지만, 다태아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와 건강하지 않은 아이의 양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난임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우리 여성은 보조생식술이라는 의학적 기술에 그저 몸을 맡긴 채 여전히 재생산의 의무와 책임을 견딜 것이 아니라, 이 보조생식술이라는 기술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아이를 얻는 기술인지, 그 과정에서 여성은 어떤 위험에 처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성이 주체적으로 보조생식술과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난임은 질병?²

1. 1978년, 영국에서 루이스 브라운이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출생하였음. 최근에는 '시험관아기' 대신에 '체외수정아'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음.
2.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아가야'의 활동으로 2012년 5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불임'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난임'을 정식 법률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난임(難妊)은 임신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주로 ‘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난임’이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가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성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용어다. 최근의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는 난임을 병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³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임 연령의 부부 중 약 13.5%가 난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러나 난임을 단순한 신체적 질병처럼 여기면서 여성의 신체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정당한 것일까? 난임의 원인으로 여성 생식기의 문제 또는 남성 생식기의 문제를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적으로 가임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결혼을 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인정을 얻기 위해 출산을 미루고, 생리학적으로 임신의 적령기를 지나 늦은 나이에 출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난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가 예전과는 다르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맞벌이 여성의 비율은 결혼한 여성의 약 50%에 이른다고 한다. 가임 연령의 중심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 40%가 맞벌이 주부라고 한다. 이는 출산을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임기 여성들이 상당수 직장 및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 가정적으로 차별이 심한 우리 문화적인 환경 내에서는 맞벌이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가 난임의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임기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은 간과하고, 마치 난임을 여성의 신체적인 질병인 양 간주하려는 의도는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난임은 질병이 아니라 이를 야기하는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이다.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과 스트레스의 감내

3. ASRM(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practice committee and ethics committee. Fertility and Sterility 2004;82:S206

4. 황나미, 「우리나라 불임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3.8.p89

를 강요하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은 무시하고, 마치 난임이 신체적인 문제인 양 난임을 짚으며 난임의 문제를 의학적 기술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보조생식술은 무엇인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란 난임의 문제를 현대 과학의 기술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칭하는 용어이다. 용어는 마치 본질적인 생식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보조’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의 몸을 도구로 하여 아이를 생산하도록 하는 모든 인위적 수단을 포함하는 의학적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생식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집하여 적절한 처리를 거친 후 여성의 배란기에 맞추어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자궁 내로 주입해 주는 기술이다. 체외수정은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 채집된 정자와 시험관 배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킨 후, 특수하게 조성된 배양액 내에서 배양하여, 배아를 생성하여 여성의 자궁으로 넣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보조생식술은 원칙적으로는 난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여성 또는 남성의 요인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으로 정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조생식술은 난임의 해결뿐만 아니라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얻기 위해서, 유전적 결함이 없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이들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동성의 커플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여 여러 가지의 윤리적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 ‘여성’의 신체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4.

보조생식술이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

보조생식술의 시술은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 및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학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위하여서는 과배란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당해야 하며(또는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 하기도 한다. 마치 당뇨병처럼), 각종의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아야 하고, 난자를 채취할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난소를 날카로운 바늘로 찢어 난자를 끄집어내야 한다. 이러한 의학적 시술들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심지어 클로미펜 같은 약물의 경우 이 약을 투여받은 여성은 투여받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난소암의 발생 위험이 3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다.

과배란 약물의 부작용

과배란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여성은 여러 종류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복부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얼굴이 붉게 되거나 작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감정의 변화를 겪기도 하며, 유방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온몸에 반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두통, 체중증가,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

정상적인 배란은 한 달에 한 번, 한 곳의 난소에서 한 개의 난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생식술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배란은 배제되고, 한 번에 더 많은 난자를 얻기 위한 과배란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배란을 위하여, 즉 한 번에 여러 개의 난포가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호르몬제제를 주사한다. 또한 난포들이 주사된 호르몬제제에 잘 반응하여 잘 커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질을 통한 초음파검사를 하며, 난자를 채취할 날을 결정하기 위하여 몸속의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을 채취한다. 이러한 과배란 과정 중에 상당수 여성은 난소 과

자극 증후군(OHSS: 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을 겪기도 한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란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부작용 및 난소에서 과도한 난포의 성장으로 인하여 오심, 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벌어졌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연구용 난자를 제공하기 위해 과배란을 당했던 여성들에게 과배란으로 인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상당수 발생했음을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한익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렇게 난자를 채취한 결과 난자 제공자의 15~20%가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과배란을 당했던 여성들의 증언이다.

“과배란을 하면 배가 많이 아파요. 난자가 한 번에 하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어요.”

“과배란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주사를 맞았어요. 억지로 과배란을 하면 복수가 차거든요. 그럼 또 복수 때문에 알부민 주사를 맞아요. 그럼 그 주사가 15만원이고...”

난자의 채취

과배란을 위해 난소가 준비되면 체외수정을 위한 난자를 여성의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난자 채취술이 기다리고 있다. 난자 채취를 위한 난소에 대한 접근은 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질에 기다란 초음파 기구가 삽입되고, 그 초음파 기구를 통해 길고 날카로운 바늘로 찢어 성숙된 난포를 터트려 그 안의 난자를 흡입해낸다. 난자의 채취 시에는 통증이 동반되므로 이를 위해 마취가 이루어진다. 마취는 주로 정맥마취제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며, 마취된 여성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난자 채취를 위해 산부인과용 침대 위에 누워있게 되며, 마취된 동안 시술자는 초음파로 성숙된 난포를 찾아가며 여러 차례 난소를 찢어 난자를 채취한다. 때로는 난소를 찢는 과정이

열 번을 넘게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난소의 출혈을 야기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난소의 출혈은 복막을 자극하고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하여, 난자 채취의 후유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성숙된 난포가 깊은 곳에 있는 경우나 질식 초음파를 통해 채취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고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자를 채취하기도 한다.

난자를 채취한 후에는 마취로 인한 정신의 혼미함 또는 어지러움 및 복강 내의 자극으로 인한 오심, 구토, 복부 통증 등이 발생한다. 대개는 난자 채취 후 2~3시간 정도의 휴식을 병원에서 취하고 퇴원을 하게 되나, 복수가 차거나 난소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난자를 채취한 후 수일 동안은 전체적인 몸의 상태가 저조한 편이나 채취된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후, 생성되는 배아를 이식할 준비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배아의 이식, 그 결과

체외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를 대개는 난자 채취 3일 후에 이식하게 된다. 배아를 이식한 지 2주 후에는 임신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우선은 혈액을 채취하여 임신 관련 호르몬의 수치를 측정하고, 이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 임신으로 확인한다. '201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31.1%로 나타났으나 실제 출산율은 26.0%이며, 자궁외 임신이 1.2%로 나타나, 체외수정 시술의 혈액검사 결과가 임신이라 하여 다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궁외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위험을 모두 여성이 감당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후의 임신 가능성은 더욱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임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사업의 통계를 보면, 전체 체외수정 시술 중 13.2%만이 1개의 배아를 이식하였을 뿐 그 이외에는 모두 2개 이상을 이식하여, 다태아의 가능성을 전제로 체외수정을 통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0년의 정

부지원사업에서는 26.5%가 쌍둥이 출산이었으며, 세쌍둥이 출산이 29건, 네쌍둥이 출산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의 임신은 임신부에게 다태아의 임신에 비하여 임신중독증 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이며, 출산 중의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조기 출산으로 인한 미숙아 및 저체중아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어, 보조생식술로 난임은 해결하였는지 모르나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5. 맺으며

많은 난임의 원인은 여성의 신체적인 상태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난임의 원인이 모두 여성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난임의 원인 중 남성으로 인한 것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불임 원인은 음주 및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각종 의학적 방법을 다 동원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가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보조생식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마치 여성으로부터 불임의 원인을 벗겨준 것인 양, 난임의 원인을 여성 측 몇%, 남성 측 몇%, 원인불명인 경우가 몇%라고 각종 전문지를 통해, 때로는 대중매체에서 읊어댄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난임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여성의 몸을 도구로 하여 약을 투입하고, 피를 뽑아 검사를 하고, 난자를 채취하고,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시술의 20~30%에서 아이를 얻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물의 부작용, 자궁외 임신 또는 유산 및 선택적 유산, 다태임신으로 인한 조기출산, 미숙아의 출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여성의 몸이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난임부부의 값비싼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첫해인 2006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만 1만9천136건 지원하였는데 반해, 2011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 2만4천448건 및 인공수정 시술 3만1천604건으로 총 5만6천52건의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실제로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난임의 문제는 여성의 몸에 약물을 투여하고 칼을 들이대어야만 해결이 되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난임의 문제를 저출산과 결부하여 여성에게 더 잦은 보조생식술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요구는 옳지 않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 여성의 고유한 생식능력을 자연스레 표출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남성과 여성의 비만이나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보조생식술에 돈을 쓰기 전에, 생식을 위해 건강한 신체를 갖춘 남성과 여성이 될 수 있도록 가임기 연령 또는 난임부부들에게 비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금연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무료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신체가 수태와 출산에 적절하도록 구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식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에 여성의 몸이 동원되는 것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난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인 우리가 난임을 유발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들추어내서, 여성의 몸에 침습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글을 쓴 김명희는 마취과 전문의로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생명윤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시대의 징표와 상상력

박경미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1. 시대의 징표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배경으로 존재할 것 같지만, 사실 자연은 인간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제 길을 갈 뿐이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대로 현실을 주조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커다란 위기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심각한 자연환경 상의 재해와 관련이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전지구적인 방사능 공포를 비롯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그로 인한 잦은 폭풍과 기상이변, 식량위기, 화석연료 고갈 등 아마 우리를 기다리는 세계는 괴롭고 힘들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급박한 위기는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전지구적인 방사능 위기이다. 단순히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 폭발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동경전력과 일본정부가 보여주는 사고수습 방식, 후쿠시마 이후에도 여전히 핵발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그리고 핵발전을 재개하려는 일본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

에게 희망이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최근 후쿠시마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로 두렵다. 후쿠시마의 원자로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물을 붓지 않으면 폭발한다. 계속해서 물을 부어서 원자로를 식혀 더 이상의 폭발을 막고 있을 뿐, 방사능 오염을 차단하지도 못하고, 핵분열을 중지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매일 400톤의 물을 붓고, 400톤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그 중에서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새어나와 태평양 바다로 흘러갔다는 것이 지난 해 7월 동경전력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것은 더이상 은폐할 수 없어 최소한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 전 방한한 일본의 핵전문가 고이데 히로아키에 따르면, 후쿠시마는 당장 파괴적인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특히 무너져서 위태위태한 4호기 저장풀에 보관하고 있는 1천300여 개의 폐연료봉과 이 폐연료봉 저장풀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공동폐연료봉 저장소의 6천여 개의 폐연료봉을 포함해서 도합 1만1천개 정도의 폐연료봉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그 주변에 있다. 자주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일본은 지진 활성기이고, 후쿠시마 지역에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만일 이 지역에 직하지진이 일어나서 냉각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저장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북반구 전체가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는 말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다.

1, 2, 3, 4호기에서는 지금도 연기가 솟고 있고, 이것은 멜트다운 해서 방사능물질이 지하수까지 침투했다는 뜻이고, 그러한 방사능물질이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벌써부터 동경전력 사원들의 퇴직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현장에서는 점차 인력이 고갈되어 더 이상 인력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력은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견잡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있는 4호기 폐연료봉 저장소의 폐연료봉을 동경전력이 현재 옮기고 있는 중인데,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전지구적 재앙을 가져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한다. 극히 예민한 폐연료봉 1천300개 중 하나라도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흔들린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결국 동경전력도,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국제적인 전문인력이 간다 해도 기약이 없지만, 몇몇 국제적인 핵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유엔 차원에서 후쿠시마 사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전세계적인 노력을 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차기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열에 들뜬 것 같은 모습과, 경제위기에 처한 스페인 마드리드와 핵위기에 처한 동경 중 핵위기 쪽을 택한 IOC의 결정을 보면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후쿠시마 사태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직면한 대재앙이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상상력은 국가라는 경계 앞에서 거의 무너져 버리는데, 과학과 기술과 자본은 그 경계를 넘어섰고, 그것의 가장 무섭고도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보고 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만든 기계 역시 완전하지 못하다. 게다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기계를 움직이니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사고의 위험이야 어디에든 있는 것이지만, 핵발전의 문제는 그 피해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라고 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핵은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 그 사실을 망각한 오만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속수무책의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다시금 이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리고 이런 파괴적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은 언제나 사회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프다.

지금 우리나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다. 재작년, 설을 며칠 앞두고 있던 1월 16일 70세가 넘는 이치우 노인이 경남 밀양 자신의 논 앞에서 분신자살을 했다. 노인은 7년째 이어오던 송전탑 반대투쟁 끝에 두 달 반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현장인 산꼭대기까지 오르내리며 맨몸으로 공사를 막았다. 그 날은 철탑부지로 정해진 자신의 눈에 중장비가 들어오고, 용역들이 하루 종일 으르렁했는데, 그들은 내일 또 온다고 했다. 결국 그날 저녁 노인은 마을회관 앞에서 온몸에 기름

을 붓고 자기 눈 가까이 가서 라이터불을 붙였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치우 노인의 죽음으로 7년 여를 버텨온 밀양 노인들의 외로운 싸움이 세상에 알려졌고, 젊은이들도 합류하면서 싸움은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재작년 6월 한국전력은 노인들에게 공사방해를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으로서는 익숙한 매뉴얼대로 한 행동이었겠지만, 노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 때 할머니들이 “현명하신 재판장님께” 써보냈던 탄원서는 널리 읽혔다. 할머니들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 할때는 욕심 없습니다. 오직 요대로 살다가 죽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썼다. 보통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물러서는데, 밀양 노인들은 달랐고, 그들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다. 지금도 여전히 밀양은 대치중에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의 배후에는 신고리 핵발전소 3, 4, 5, 6호기가 있다. 영남권은 전력 자립도가 190%가 넘는다. 한전 계획대로라면 밀양 5개 면에 평균 높이 100m인 송전탑 69기가 500~600m 간격으로 세워지고, 765kV 초고압 송전선이 이어져 신고리 핵발전소 3-6호기로부터 수도권까지 전력을 수송할 것이다. 사람들은 전력 예비율, 전력생산량이라는 수치 뒤에 그 전기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폐허로 만드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문제의 밑바닥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중심 에너지정책, 원거리 대량수송 중심의 전력정책이 깔려 있다고 말한다. 송전탑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없이 우선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4대강사업, 용산 재개발에서 보아왔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핵발전소 건설 역시 거대한 토목공사이고, 대형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은 핵발전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명쾌하게 말했다. 첫째, 핵발전은 대도시 주민의 전력공급을 위해 농촌과 시골 벽지 주민들을 희생시킨다. 둘째, 핵발전소 건설과 유지는 방사능에 노출된 가난한 일용직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건 희생을 담보로 한다. 셋째, 사용 후에도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을 수만 년 이상 배출하는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기 때문에 핵발전은 현세대의 안락을 위해 미래세대를 희생시킨다. 핵발전이 내포하는 이 세 가지

희생, 내지는 차별은 사실상 핵발전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원전 하청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 발기인이자 그 자신이 원전 하청노동자인 비라르는 경제발전이나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 국가안보를 위해 핵발전이 불가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인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묻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불행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인가 그는 묻고 있는 것이다.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은 “우리는 문명화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야만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자본주의 물질문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무감각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부르조아의 냉혹함’이다. 그리고 더 이상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순진무구함’이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인데도 모르는 척, 자신은 순진무구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후쿠시마로 대표되는 오늘날 세계의 중대한 위기는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성장의 한계

합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고 거의 불가사의하기까지 한 이 파괴적인 추구의 근저에는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추구에 종속시키는 근대 산업문명의 병적인 경향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핵발전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문명의 발전은 비정상적인 물질적 풍요와 함께 상존하는 엄청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인류가 서식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파멸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뿔 수 없이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 역시 많은 진지한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리처드 하인버그(Richard Heinberg)는 그의 책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The End of Growth: Adapting to Our New Economic Reality)』에서 단호하게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금융위기와 석유생산 정점, 기후변화와 같은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위기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자본의 세계화 과정이 한계에 도달했고, 따라서 더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끝났다. 경제적 착취의 확대, 전 지구적 자본의 확장은 끝났다. 그는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위기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징표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시 경제성장을 예전으로 돌리려는 모든 근시안적이고 무익한 시도는 실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 근거한 것이다.

‘성장’이란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 즉 경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고 통화 회전을 증가하고 경제에 흘러들어가는 에너지와 재화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며 생물다양성이 사라지고,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에 중독되어 있다. 성장이 없다면 세금수입이 부족해지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복지제도를 뒷받침할 재원도 부족해진다. 또한 성장이 없다면 현재의 채무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은 빚을 떼이게 된다. 화폐를 뒷받침한 것은 신용이었고, 신용을 뒷받침한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였다. 따라서 성장의 종말은 신용의 종말이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일시적인 불황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장경제, 아니 문명 자체에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격변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인버그에 의하면 오늘날 경제는 단순히 GDP나 고용, 적자, 소비지수같은 수치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는 그러한 기존의 척도로 세계경제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으며, “GDP를 잣대로 국가의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려는 것은 음표 개수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물론 그러한 지수들로 보더라도 오늘날 세계경제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위기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면서 반복되고 있다. 정말로 우리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복잡한 숫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인

간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오늘날 세계경제구조 밑바닥에 장착된 시한폭탄같은 구조적 결함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는 성장시대가 끝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석유위기로 대표되는 자원고갈,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금융통화의 구조적 실패를 들었다. 석유문제 전문가이기도 했던 그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원고갈, 즉 석유위기를 꼽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석유생산은 이미 정점을 지났거나, 정점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수레바퀴를 쉬지 않고 굴려온 것은 실은 석유였다. 석유는 그 어떤 대체에너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성이 높고 운송이 편리한 값싼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석유가 희소해질수록 현대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대될 것이다. 자원고갈로 물질적 한계에 도달한 가까운 미래는 먼 과거를 닮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인버그에 의하면 언제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는 시간문제이고, 경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러한 폭발은 언제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전 세계의 재정시스템은 2008년의 경제위기보다 훨씬 극적인 위기를 겪을 것이다. 만일 국가가 위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끝없는 성장과 착취의 경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인버그는 말한다. 그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정부는 결코 기업권력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현 권력구조의 급진적인 전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은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이 점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속불가능하다. 이 ‘지속불가능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채무탕감, 엄청나게 부풀려진 군사비 지출에 대한 대규모 삭감, 재정부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 과두 엘리트들과 기업들에 대한 높은 과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인버그는 가령 모든 빚을 75~90% 깎아주고, 20% 넘는 고금리는 불법화하자고 한다. 이러한 경제의 재구조화가 기후변화의 효과를 완화하고 자원의 고갈을 완화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탈경제 정치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정성을 창출해낼 것이다. 그러나 하인버그

는 과연 그런 합리적인 정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그는 파국이 가속화하면서 과워엘리트 쪽에서 더 대담하고 절망적인 드라이브를 걸어 거대 은행과 군사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사회의 자원을 더욱 약탈적으로 먹어치우지 않을지 우려한다.

결국 생존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복원능력이다. 과거 선조들처럼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성장이 멈추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자급적 농민이 많은 나라는 '저개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공동체들은 집단을 형성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안전을 지키며 교육과 재정시스템, 자기통제 등을 실행해야 한다. 하인버그는 이러한 탈중심화 과정이 21세기 경제와 사회적 흐름의 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은 예전의 노동계급, 그리고 새로 가난한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중간계급들이 자신들에게 강요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탈중심화된 자율적인 인간 공동체들이 남을 것이라고 하인버그는 말한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한다. 우리 삶의 질은 우리 공동체의 질에 달려 있다. 만일 공동체적인 구조가 강력하다면 아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공동체적인 연대가 약하다면 시련에 꺾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대파국의 위기가 정말로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구조가 장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그것은 "이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푸드뱅크를 설립하고, 지역 농산물시장을 만들고, 지역통화를 실천하고, 텃밭을 가꾸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웃들과 가정, 친구들의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역에 더 잡고 지역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만이 생존을 위한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각자 실제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보다 자급적이 되고 이웃과 신뢰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무한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과산했다는 것은 하인버그만이 아니라 이미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에서부터 장 지글러,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바다. 슈마허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경제'를 얘기했고, 유한한 지구에서 계속 살려면 순환적 경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고 호소했지만, 기업권력과 정치권력, 그들을 뒷받침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들의 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이제 전 지구적인 경제상황과, 더 중요하게는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만든다. 모호한 암호 같은 말로 참된 소통을 회피하는 사이버 전문가들의 토론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고, 이제 경제성장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3.

희망을 위한 상상력: 믿음과 가난

제어되지 않은 오만은 항상 자기파멸을 가져온다. 돌아보면 넘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험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가 급진적으로 우리 삶과 문명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파국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성장의 환상에 눈이 어두워진 우리는 보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돈에 중독된 어지러운 죽음의 춤은 실제 세계로부터,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는 자기기만과 환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 사실은 믿음의 위기이다. 오늘날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그들과 공모한 관료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성장에 대한 청사진은 환상이며, 성서의 언어로 말하자면 우상이다. 옛 예언자들이 파국적인 상황에서 외세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하며 스스로 의의 길을 열어가라고 촉구했듯이, 이제 우리는 성장신화라는 환상, 우상을 깨고 좋은 삶, 행복에 대

한 다른 생각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고, 세속적인 언어로 바꿔 말하자면 상상력이다. 믿음과 상상력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눈앞에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삶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키워온 믿음의 습관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지녔던 마음이며, 로마제국에 의해 처형된 사람의 소식을 로마제국 방방곡곡에 전하겠다고 걱정했던 바울이 지녔던 마음이다. 그들은 믿음과 상상력을 통해 희망을 이어왔고, 인류의 삶을 이어왔다.

성장신화의 환상을 깨부수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가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을 요청한다. 전통 사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즉 '인간의 조건'을 자각하며 살아갔다. 종교와 문화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인간 조건, '삶의 필연'에 순응하고 동시에 저항하면서 자기 한계를 깨달아갔던 전통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은 '가난'이었다. '가난'은 오늘날처럼 부나 지위, 명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 '삶의 필연'에 생태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해나갈 때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삶의 스타일이었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는 '가난'이 결코 박멸의 대상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난'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살아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의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난'은 곧 '삶의 필연', 즉 '운명'이었다.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실은 바로 이 '가난'이 꽃피워낸 결실인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가난'은 이반 일리치 Ivan Illich에 의하면 "지혜로운 인간 homo sapiens"을 탄생시킨 반면 오늘날에는 '가난'을 끊임 없이 박멸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곤궁한 인간 homo miserabilis", 즉 무언가 늘 부족하다는 강박, 결핍감에 빠져 곱떡대는 인간을 탄생시켰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지금처럼 욕을 먹게 된 것은 그 동안 교회가 '가난'을 죄악시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을 하느님나라에 대한 믿음과 맞바꾸고, 물질적 이해관계를 이웃관계와 맞바꾼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국가가 퍼뜨리는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신화를 수천 년 동안 교회가 품어온 하느님

나라에 대한 꿈과 동일시한 것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어되지 않은 자본주의의 탐욕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온 국토를 결판낼 때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교회가 이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원한 적'인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 거기 저항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 이제 '성장의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그 동안 경제성장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설교해온 교회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성장의 한계점에 이르러 괴로워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에게 무슨 해줄 말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정치권력, 기업권력과 함께 현재의 파국에 이르는 데 공모해온 이 세상 권력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의 삶이 신성한 차원, 즉 화폐가치를 뛰어넘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집단자살로 간다. 그런 사회는 죽을 때까지 제 몸을 파먹는 괴물과도 같다. 그런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이라는 걸모습 뒤에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공허함을 감추고 있는 자들이 지배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환상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를 쓴다. 그들은 민주주의, 인권, 생명의 거룩함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생명으로부터 마지막 한 줌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그들은 최후의 포식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살아 있는 한 저항과 행동은 정언명령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희망'을 말할 수 없다. 희망은 결코 합리적 계산을 통해 나오지 않는다. 합리적 계산에는 영적 열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건디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 상상력을 가동시켜야 한다. 저항을 위한 육체적 힘과 마음의 힘은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발견된다. 로마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체제 하의 숨막히는 상황에서 예수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제국의 깃발이 나무부기는 로마의 도시들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상상력에 의해서였



다. 삶의 바닥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삶을 이어온 수많은 이름 모를 남녀들이 자신들의 물리적 조건을 넘어서고 거룩의 힘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이 인간적 상상력이었고, 이러한 상상력은 교회가 보존해온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상상력이란 환상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환상을 추종하는 능력도 아니다. 그것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한 것들은 경험과 사실의 세계를 넘어선다. 그것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식이나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진리, 사랑, 의미를 추구하는 우리 삶 한가운데 있으며, 오직 상상력을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상력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운명에 직면하는 능력이자 진리와 대면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상상력을 무시하는 문화는 자멸하는 문화이다. 그러한 문화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다.

성서의 예언자들은 우리 자신을 숭배하지 말고 저열한 인간적 감정인 탐욕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이들의 희망은 자기기만이 아니라 신성한 것들에 대한 존경에 근거했다. 예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과 타자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신성한 차원에 대한 존경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보존해온 귀중한 전통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이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인류의 모든 위대한 종교적 전통은 인간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결코 전체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다. 인간은 '전체'의 일부로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 뿌리내리고 주어진 삶의 필연, 즉 유한한 인간조건 안에서 사랑하고 희망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가난한 삶에 대한 믿음과 상상력이다. 그 분께서도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글을 쓴 박경미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성서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 『새하늘 새땅 새여성』이 있으며, 『삶은 기적이다』, 『생태학적 치유』, 국제성서주석 『사도행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의 다수의 책을 번역했다.

방사능 오염과 시민 감시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1.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 통제 불능의 방사능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사고원전은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었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말과는 달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월 5일 일본의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 다나카 순이치 위원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현 상황을 보면 총량을 관리하고 목표를 세우는 건 무리다. 정상 가동을 할 때처럼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방출량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원전을 통제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방출할 지 알 수 없다”며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통제할 수 없으니 “배출된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생선 모니터링 등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전 사고 3년을 앞두고 일본 규제기관 책임자가 후쿠시마 원전과 오염수 자체를 통제하지 못할 뿐더러 방사성 물질 방출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다나카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 해 12월

방사능 오염수가 225톤 유출된 데 이어 얼마 전 2월 19일에는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서 오염수 100톤이 누출되었다.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은 방사능 오염수인데 이번에는 스트론튬90 등 리터당 2억3천만 베크렐_{Bq/L}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또한 도쿄전력은 2013년 7월 방사능 오염수 사태 때 채취한 지하수에서 리터당 500만 베크렐의 스트론튬90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에야 밝혔다. 500만 베크렐은 국가 방출 기준치(스트론튬 방출 기준치: 리터당 30베크렐)의 16만 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문제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아예 해양 유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있다. 때문에 최근 발생한 오염수 누출 사고도 저장탱크 배관 밸브를 열어놓은 인위적 실수 또는 고의적 사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손 들어주기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방사능 오염수의 해결방법으로 해양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원자력의 이용과 국제적 공동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와 긴밀한 공조를 취해왔다. 지난해 10월 일본 경제산업성(원전 진흥부서) 모테기 도시미쓰 장관은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신뢰성 높은 모니터링과 정보 발신 분야에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마노 총장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에 과격한 인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주문을 국제원자력기구 이름으로 대변해왔다. 아마노 총장은 모테기 장관의 협조 요청대로 신속하게 후쿠시마 현지 조사단을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IAEA 조사단은 경제산업성 등과 함께 10여 일간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일본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해수와 식품 유통에 대한 매우 인상적

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식품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준치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주변 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은 “우리가 본 것으로는 오염수는 대부분 원자로 건물에 들어있고, 그 영향은 항구 안에서 발견됐다”며 아베 정부가 요청한 내용대로 입장을 발표했다. 나아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 제거장치로 처리가 안되는 트리튬(삼중수소)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국가가 정한 기준을 밑돌면 방출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양 방출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했다.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짜고 친 고스톱의 결론은 올해 2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현지조사 최종보고서 공표 형식을 통해 나타났다.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방출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짝짜미를 벌인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마노 총장은 후쿠시마 사고 1년도 되지 않아 후쿠시마 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주최 국제토론회를 열어 ‘후쿠시마가 방사능오염으로부터 복원’되었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의 위험을 축소하는 데 앞장섰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후쿠시마현과 ‘한쪽의 비밀은 다른 쪽에도 비밀’로 한다는 비밀유지 상호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정보와 측정 데이터, 갑상선암 발병 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더라도 일본이 반대하면 이를 비밀에 부치겠다는 계약이다. 이로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하고 일본 원전 산업계의 꼭두각시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3. ‘떡어서 응원하자’식 후쿠시마 부흥운동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을 은폐하고 원전산

업을 부흥하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일본의 유명 음료와 외식업 관련 대기업들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재료로 한 제품을 앞다퉈 시판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앞바다 조업도 '시험 조업'이란 이름 아래 허용했다. 지난해 9월 후쿠시마 현 소마 후타바 어협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털게, 문어, 홍살치 등 16종의 저인망 어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시험 조업은 잡힌 어류를 샘플조사해서 기준치 100베크렐Bq/kg이하이면 합법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업이 허용된 것이다. 실제 시험 조업에서 잡힌 가자미 등이 경매에 넘겨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원전으로부터 20km 안에 있는 가와치촌의 한 대규모 야채공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양상추 출하를 계속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현미에서 검사 대상의 90% 이상에서 kg당 5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여서 출하되었다. 가격이 저렴하여 잘 팔리고 있다고까지 한다. '기린' '가고메' '요시노야' 등은 음료나 외식업 분야에서 손꼽히는 기업인데, 후쿠시마산 토마토주스, 후쿠시마 배를 이용한 '소주탄산카테일 음료' 출시 등 자사의 인기상품에 후쿠시마산 농산물 사용을 통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요시노야'라는 유명 프렌차이즈도 '요시노야 팜 후쿠시마'를 설립해서 올해부터 소고기덮밥이나 장아찌에 쓰는 쌀, 양파, 배추 등을 후쿠시마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다시 식탁에 오르는 배경에는 이들 대기업과 아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하고 언론이 이를 묵인하기 때문이다.

4. 아이들 소변에서 세슘 검출, 정부가 학교급식에 표고버섯 제공 후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버섯류가 출하정지되거나 잘 팔리지 않자 표고버섯 생산자 단체가 학교급식에 표고버섯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쿄도 가쓰키카구의 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74개교 2만9천 명의 아이들에게 대량의 말린 표고를 제

공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임야청의 재정적 후원을 바탕으로 표고버섯을 급식용 식재료로 팔기 위해 학교급식용 신상품 개발과 메뉴 제안 등 출장수업까지 다니고 있는데, 식재료에는 후쿠시마 인근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등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포함되어 있다. 표고버섯 등 버섯류는 방사성 물질의 흡착성이 높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13개 현의 농산물 출하정지 목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버섯에서 무려 4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2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는 야생 버섯을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1960년대 중국 핵실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표고버섯에서도 세슘이 검출될 만큼 버섯류는 방사능 오염도가 높은 식품이다. 일본 정부와 관련 업계가 아이들 급식으로 버섯을 먹이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내부 피폭되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 소변 검사를 해온 '후쿠시마 노후 원전을 생각하는 모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소변에서 검출되는 세슘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에 사는 4세 여아의 소변에서 리터당 4.64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는데, 아이가 먹은 음식물 재료를 조사한 결과, 할머니가 채취한 건조 표고버섯에서 1kg당 1천81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지난 해 10월 『슈칸 아사히』(週刊朝日)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인 관동지역 15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85명을 조사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어린이 58명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최고치는 소변 1리터당 1천683베크렐로 나타났는데 관계자는 원전 사고 때 날아온 세슘이 음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축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먹어서 응원하자'는 '일본식 부흥운동'을 통해 후쿠시마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상호비밀협력각서'를 이용하고 일본 내에서는 국가 공무원 등이 중요 정보를 누설하면 10년 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오염 사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원전 산업 부활을 꾀하고 있다.

5. 음식을 통한 피폭,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위험하다

방사능 오염 피해에 대해 정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은 비단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해 여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 이후 시민들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불안해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방사능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임산부나 아이들이 방사능 세슘 기준치 100벵크렐Bq/kg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와 식약처장의 말대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은 ‘괴담’에 현혹된 것이고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 세계의 전문가들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의 안전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인체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방사능 피폭은 없다. 100%의 확률로 세포에 손상이 있을 것이다.”
- 로잘리 버텔 박사, 캐나다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ncern for Public Health 소장

“방사능은 살아있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 극미량의 방사선량이라도 유전자 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암의 원인이 된다.”
- 윈프리드 아이젠버그, IPPNW(핵 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 의사회) 소속 소아과 의사

결국 적은 양의 방사능에 피폭되면 낮은 확률로, 많은 양에 피폭되면 높은 확률로 암을 유발하게 된다. 방사성 물질은 어떠한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도 없앨 수 없다.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방사선을 내뿜는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단 몸속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소멸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기준치 이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평생 동안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오히려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단 한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을 한번에 1천벵크렐Bq 섭취하면 800일이 지나면 몸속에 남아있는 세슘이 제로가 된다. 하지만 매일 10벵크렐씩 섭취했을 경우 600일이 되면 몸속에 1천500벵크렐이 축적되고, 매일 1벵크렐씩 섭취할 경우 600일 정도 지나면 180벵크렐이 몸속에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6. 아이가 어른에 비해 스무 배나 더 위험하다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몸속에 들어와 생체조직을 파괴하는 내부피폭은 태아와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 보통 태아는 성인에 비해 1천 배, 아이는 어른에 비해 20배나 방사능에 더 취약하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은 치명적이다. 세포분열이 활발한 아이들의 몸속에 세슘과 스트론튬 같은 인공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우리 몸이 방사성 물질 요오드 131이 몸속에 들어오면 요오드로 인식하고, 세슘은 칼륨, 스트론튬은 칼슘으로 받아들여 이들 물질을 필요로 하는 장기로 흡수하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벨라루스 고멜 의과대학 총장 출신인 유리 반다제프스키 박사는 특히 어린이의 피폭 영향에 주목했다. 병리학부학자인 그는 오랜 추적 연구를 통해 어린이의 몸에 kg당 10벵크렐의 세슘만 축적되어도 심전도가 정상인 어린이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0벵크렐이 축적되면 정상인 어린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또한 체르노빌 원전에서 145킬로미터 떨어진 고멜 지역에서 사망한 어린이 8명과 성인 8명의 시체를 해부하여 어린이의 모든 장기에서 어른에 비해 2배에서 3배 가까이 세슘 축적

량이 많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7.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로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차단 못해

앞으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은 물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시판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해석을 근거로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제한 조치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결국 일본의 야만적 정책의 피해는 주변국 중에서는 가장 허술한 수입 제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여 8개 현 수산물 수입중단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8개 현 수산물 외에 모든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년 6개월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건수는 131건에 달한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역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현에서부터 최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역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수입금지 지역으로 정한 8개 현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곳은 이와테, 이바라키현 등 3개 현에 불과하다. 오히려 8개 현 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된 홋카이도의 경우 방사성 물질 검출 건수가 6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후쿠시마로부터 1천km 떨어진 일본의 남해와 서해 지역인 가고시마와 구마모토현, 시마네현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일본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난파당한 후쿠시마현 배가 2년 6개월 만에 일본의 서해이자 우리나라 동해 쪽인 후쿠이현에서 발견되었다. 일본 동해에서 난파된 배가 후쿠이현에서 발견된 것은 후쿠시마 해류가 일본 서해까지 닿은 것으로 일본 해역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증거이다.

8.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은 오히려 증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의 40%는 원전 반경 80km 안에 떨어졌다.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유도 이들 지역이 훨씬 심각하게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만 금지했을 뿐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만든 수산가공품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청주, 아이들 사탕까지 수입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식약처가 국회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수산물 가공품, 청주 등 일본산 가공식품은 총 458건 200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8개 현에서 수입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5천755건으로 8천912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공식품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산 가공품과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은 원산지(지역명) 표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2개 국가 이상의 수입 재료가 사용되면 일본산 재료가 포함되더라도 '수입산'으로 표기되어 방사능 검사도 진행하지 않는다.

9.

미량의 방사성 물질 검출은 '불검출' 처리, 스트론튬은 검사조차 안해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서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비오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방사능 오염 식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와 해수부 등 정부 부처는 방사성 물질이 1베크렐(Bq/kg) 미만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처리하여 '비오염 증명서' 요구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1베크렐 미만의 일본산 식품은 무방비 상태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

방사능 검사 방법을 다루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에는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최소 3시간 이상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약처는 일방적으로 '신속검사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30분만 검사하고 있다. 식약처 검사로는 0.5베크렐 미만의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식품공전'에 따라 3시간 검사를 하고 있는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 중 0.5베크렐 미만의 방사성 물질 검출 건수가 40% 가까이 된다. 그 결과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 검사 중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1%도 되지 않지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검출률은 20%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방사능 검사에서 가장 심각한 허점은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물질이 스트론튬 90인데 우리나라는 검사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검사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미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힌 생선에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이 검출되고 있다. 어떤 식품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들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시민들은 오염 여부에 대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다.

10.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양식 어류와 가축은 국내산으로 유통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현 주변 10개 현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사료는 직접 사람이 섭취하지 않더라도 사료를

먹은 양식용 어류나 가축을 사람이 먹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높게 농축이 일어난다. 때문에 사료의 경우 식품과 달리 방사성 물질 세슘의 기준치도 더 엄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까지 수입된 사료의 41건에서 약 1천 8백톤의 사료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시중에 유통되어 양식용 어류와 축산용 사료로 사용되었다. 문제는 이들 사료가 국내 양식용 어류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산 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4개현의 사료만 수입금지할 뿐 다른 지역에 대한 조치는 없다. 게다가 사료의 경우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료수입 총괄을 하고 있는 농림부는 앞으로도 기준치(40Bq/kg)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료는 계속해서 수입하겠다고 한다.

11.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로 확대해야

일본산 식품과 사료 외에도 최근 대만산 콩치 등 국내 유통 중인 농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여러 건 검출되었다.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은 배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 표기된다. 가령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배가 잡으면 러시아산, 중국배가 잡으면 중국산, 대만배가 잡으면 대만산으로 표기된다. 국내 수입 수산물 중에서 러시아산이 32%, 중국산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산물을 잡은 해역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은 매품목당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수산물만 검사를 하고 그것도 태평양산과 원양산 등 몇 종류에 한해 주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기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수산물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방사능 검사는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산의 경우에도 마냥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적의 배도 후쿠시마 해류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원양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양산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후쿠시마 해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연안의 어종과 원전 인근 주요 어류와 해초류에 대한 조사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12.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조례제정으로 방사능 오염 식재료 차단해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이 수입되는 동안 아이들 급식에도 일본산 수산물 식재료가 공급되었다. 국회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업체 52곳 중에서 2곳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드러났으며 전국 초·중·고교 급식에 가다랑어포, 콩치, 명태, 연어살, 갈치, 코다리 등 일본산 4천 327kg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었다. 수산물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급식업체도 9곳이나 있는 데다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학교 특성상 원산지 표시 없이 수산물 등을 공급한 업체는 훨씬 많을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 이후 방사성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서 제정된 조례로는 아이들 급식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많다. 먼저,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미소(일본식 된장)나 각종 첨가제는 식재료에 사용될 경우 식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그나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1년에 한두 차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후 검사방식이어서 실효성이 없게 조례가 제정되었다. 게다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경우 학교급식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아

이들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능 오염의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요즘 아이들은 초·중생의 경우 점심을 학교급식으로 먹고, 고등학생은 점심 저녁 두 끼를 학교급식으로 때운다. 학교급식이 아이들 건강에 결정적인 이유이다. 일본산 식품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원양 수산물 등이 식탁에 올라오는 한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식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

13. 시민감시활동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 줄이는 정책 만들어야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도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을 내뿜으며 끓고 있다. 핵연료를 식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도 날마다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을 추진하면서 국제협력기구와의 상호비밀협력각서, 특정 비밀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정보를 더욱 은폐하려고 한다.

방사능 오염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조업을 허용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쌀로 식재료를 만들고, 방사능 오염 식품인 표고버섯을 아이들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일본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방사능 오염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 시대, 모든 일본산 식품을 멀리하고 원산지를 확인하는 생활습관은 필수적이다.

일본산 외의 식품도 정부의 방사능 검사 조건을 강화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학교와 보육시설의 급식에서 일본산 식품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운동을 벌여야 한다.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이러한 조례 제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과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가진 정치인을 뽑고 나아가 방사능 오염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에 힘을 보태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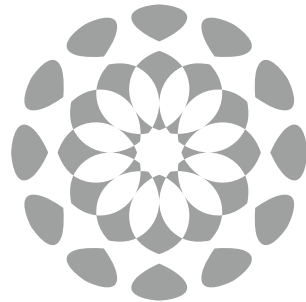
글을 쓴 김혜정은 1988년 고향 울진에서 반핵운동을 시작한 이후 공해추방운동연합 반핵평화부 간사를 거쳐 2007년 환경연합 사무총장직을 마칠 때까지 탈핵운동의 길에 함께 있었다. 잠시 안식년을 맞아 쉬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즉시 한국으로 돌아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아 탈핵운동의 길을 다시 이어갔다. 현재 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1. YWCA 운동의 과거와 현재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본 한국YWCA운동
유성희(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2. YWCA 운동 실천 현장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지다
명진숙(한국YWCA연합회 국장)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본 한국YWCA운동¹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기독교 여성운동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기독교 여성운동이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개화기에 시작된 기독교 여성운동은 여성 해방의 인식을 사회에 전파했고, 여성교육과 계몽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성단체를 조직했으며, 수많은 여성운동의 리더를 양성했다. 한국의 여성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소위 ‘새로운’ 여성운동 중심의 역사 기록은 한국YWCA가 90년 동안 지

1. 이 글은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한국YWCA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를 요약 수정한 것이다.

속해온 한국여성운동의 지속성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서구로부터 도입된 페미니즘의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새롭게 조직하거나 실험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재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한국의 현실에서 여성운동 담론이 여성해방의 목표와 과제 설정에 있어서 급진적 페미니즘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의 역사가 밝혀져야 하는 것은 한국YWCA가 지켜 온 현상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은 삶의 상황과 직결된 것이고,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와 직접 대면한 여성들의 실제적인 실천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YWCA의 초기 정신과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 한국의 여성들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는 일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여성운동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한국YWCA 초기 역사 이해 - 설립의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운동은 서구에 의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기독교 문명의 전파를 통해 남녀 평등의 가치관이 유입되었고, 당시 유교적 전통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기독교는 여성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초기 여성운동은 식민지 일제 치하에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고, 3·1 운동 이후 여성운동의 민족주의 계열과 기독교운동 진영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남녀평등의 가치 실현과 민족의 실력양성을 통한 구국, 즉 여성교육과 계몽운동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설립한 것이 한국YWCA의 출발점이었다. 이처럼 한국YWCA는 태생적으로 기독교성을 배태하고 있으면서 민족주의와 결합된 초기 여성주의

1
2 3

1.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계속되어 온 축척반대운동
2. 1970년대 소비자인권운동
3. 2003년 대학생 100인 100일 릴레이 인권운동



의 이념적 지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한국YWCA는 3·1운동 이후 기독교여성운동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기에 기독교 여성운동 세력이 모여서 시작한 조직이다. 한국YWCA는 초기부터 다양한 운동의 이념과 전국적 조직망,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단단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고, 각 개인은 철저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기초로 하면서도 교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과는 구별되는 초교파적이고 사회변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서의 조직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한국YWCA운동은 기독교적 이념과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가 결합되면서 한국에 페미니즘이 이론으로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 여성주의Christian Feminism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YWCA가 형성한 기독교 여성주의는 한국YWCA가 여성운동 조직으로 90년의 역사를 이어온 배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한국

YWCA운동은 일제하에서 민족의 독립과 여성의 해방을 희구하던 여성들의 의식과 실천이 통합된 기독교 대중조직 실천운동이었다. 한국YWCA운동은 근대성의 기초 위에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초교파적 사회 선교 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을 수용했다.

한국YWCA가 초기에 영향을 받은 여성주의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서구의 제1세대 기독교 페미니즘이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공화주의적 모성 개념을 확장하여 여성계몽과 여성의 교육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 여성주의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외세로부터의 독립의식을 갖추게 되었으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교육’과 ‘계몽’으로 귀결하는 특징과 한계를 가졌다. 이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나, 여성운동이 취한 전략이기도 했다. 여성운동이 세력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와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했으며,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YWCA의 초기 여성운동은 교파와 계층을 초월한 여성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YWCA는 교회와는 다른 조직으로 출발했다.² 한국의 기독교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여성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선교 초기부터 뿌리내린 개인 구원의 기복적 신앙 형태는 한국 교회의 대중과 여성들이 교회조직 내에서 여성해방의 의식을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³ 한국의 기독교여성운동이 태생적으로 가

2. 기독교운동으로서 YWCA는 교회의 역사와는 그 흐름을 달리한다. 장화인은 「왜 YWCA인가?」에서 YWCA가 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말하는데,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가진 속성과 YWCA가 추구하는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분석한다. YWCA는 기독교정신으로 만들어진 단체이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에큐메니칼적인 성격과 더불어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여성운동의 프레임도 갖추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는 남성목회자-남성장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회의 여신도 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리더나 목회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여성에게 안수를 부여하지 않는 교단이 현재까지 있는 것을 볼 때, 기독교여성운동단체인 한국YWCA는 한국기독교와는 분명히 다른 색채가 있다.

3. 한국의 기독교는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기초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 설립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 박순경은 근대교육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망은 대단했으며, 구국운동으로서의 일반 교육운동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발휘되었으나 교육선교의 의도가 그 열망과 모순되는 서양 문명의 지배세력에 입각해 있었던 것을 근대교육 도입의 문제로 지적한다(박순경, 1985). 특히 일제시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의 정치 압력에 굴복하여 개인 영혼 구원에 관한 신앙 이외의 교회관이나 역사의를 가지지 못했다(주선애, 1985).

진 특성 내지 한계는 한국에 전파된 보수주의적 기독교 선교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YWCA에는 한국교회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YWCA 활동도 보수주의적 신앙에 기반을 두었다. 한국YWCA가 이 같은 보수주의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보수성과 탈사회역사적 성격이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⁴

이러한 태생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는 설립 당시 일본YWCA에 소속되지 않고 세계YWCA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자주적’ 설립 과정을 가졌고,⁵ 당시 기독교의 보수주의적 입장과 달리 진보적인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또한 근우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강한 여성운동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⁶ 이것은 기존의 기독교여성운동에 대한 단일하고 부정적인 입장과 달리 기독교 여성운동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⁷

이처럼 한국YWCA 창설은 일제의 압박 아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여성들의

4. 매클라렌의 「하령회 리포트」에 의하면, 1922년 하령회에서 매일 새벽기도회와 성경연구를 하였으며, 저녁에는 우리 삶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승복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5. 설립자의 한사람인 김필례는 1920년 일본YWCA동맹에 종속된 한국YWCA조직을 중용했던 미국YWCA 위원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1922년 3월 세계YWCA협회에 대표로 김활란과 함께 참석, 독립국으로서 한국의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한국YWCA 반백년사』, 1975:28).
6. 초기 한국YWCA의 지도자들은 보수적 기독교 지식계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우회 창립에 앞장섰다. 근우회 창립당시 발기인 40명 중 계열이 확인되는 30명의 분포를 보면 기독교계가 19명, 사회주의계가 11명으로, 근우회는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의 연합단체로 성격을 가졌다. 기독교계의 대부분은 당시 한국YWCA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회합장소도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관(YWCA)에서 2회, 그리고 창립총회를 YWCA 회관에서 가졌고,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임시집행부 또한 김활란이 의장, 유각경이 부의장을 맡아 형식적으로는 YWCA가 주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근우회의 활동이 ‘투쟁적’으로 전개되고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1928년부터 기독교계 인물들이 탈퇴했고, 이후 자체 갈등과 자금난으로 1931년에 해산에 이르게 된 것은 한국여성운동사에서 안타까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노동운동을 포괄한 강령을 채택하고 활동한 근우회의 창립에 기독교계가 창립을 주도한 것은 계몽운동을 넘어선 사회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한국YWCA가 받아들인 에큐메니칼 운동정신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7. 기독교는 영적인 기능과 함께 의제에 저항하거나 타협하도록 정치화하는 공간을 제공했고,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나 기독교 여성주의를 ‘기독교 계몽주의’로 범주화 하면서 여성 기독교인으로서 민족과 맺는 관계를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기독교가 규정한 여성들의 삶과 기독교 공동체 내의 관계와 그 변화는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를 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조선 기독교 공동체는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이들을 통제하고 배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여성들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민족, 여성, 미국, 일본과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협상하였다”(강선미, 2003:21).

새로운 애국운동의 발로로, 창설자들은 이 불우한 시기에 처해 있는 전 국민의, 특히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초창기 정신은 이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초창기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YWCA 창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YWCA 정신

한국YWCA의 정신적 기반은 185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YWCA에서 온다. 그 정신의 본질은 천부인권설에 의한 여성인권, 교육과 노동의 권리주장과 참정권의 주장 등으로 구미 각 지역으로 퍼진 여성해방사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미 시작된 YMCA의 이념이 합해지고 전쟁 후 여성생활훈련소 사업과 여성기도단이 기독교 정신 안에서 합하여 각 직종에 종사하며 여러 형편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신앙과 활발한 생활을 갖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작되었다. 세계YWCA의 시작은 미국 내에서 YWCA가 성장하면서 해외 선교활동의 팽창과 더불어 국제적 여성기독교화 운동까지 관심이 확장되었다. 세계YWCA는 초기 20년 동안은 조직의 확장에 힘써 각 나라 YWCA의 조직에 심혈을 기울였다(Carole Seymour, 1994:15).

이렇게 시작한 YWCA의 국제적 협조와 유대는 급속하게 발전하여 1906년에는 13명의 해외간사를 파견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이 이 해에 세계YWCA에 가맹한다. 1917년과 1921년 사이에는 170명의 해외 간사들이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동양 각국과 남미 여러 나라에 파견될 정도로 국제활동이 확대되어 갔다. 1920년 12월 중에는 한국YWCA의 설립을 권면하기 위하여 미국YWCA에서 위원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당시 정신여학교에서 가르치던 겐소부인 집에 머물면서 재경 지도여성들을 초대하여 YWCA 이념과 조직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치하에 있어 일본YWCA의 지회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한국 측에서 거부하였다.

한국 여성단체 중 YWCA가 갖는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그 시작에서부터 국제적인 비전을 가진 여성운동을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한국YWCA는 애초부터 세계적인 여성운동체로 뻗어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제2회 하령회(총회)에서 세계

YWCA에 가입할 것을 전 회원들이 가결하였다.⁸ 그리고 창립된 지 2년 만에 세계 YWCA에 개척회원(pioneer membership)으로 가입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세계적인 여성운동체에 가입한 조직이 되었다.

세계YWCA운동은 에큐메니칼 신앙정신을 기초로 하였다. 에큐메니칼 신앙운동이란 교회일치를 위한 신앙운동으로서 사회 역사적 관심에 참여하는 신앙태도를 가진다. 이 운동은 1894년 창립된 WSCF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세계 기독교 학생운동의 특성으로 되었다.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이 세계적인 움직임에 세계YWCA와 세계YMCA도 참여하여 그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세계YWCA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체들과 공고한 연대를 가지며 개혁적인 신앙의 흐름을 회원국에 전파했고, 이러한 신앙 흐름이 당시 식민지 하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에게 민족주의와 인권의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⁹

근대화 시기에 국제조직과 연대한 경험은 한국YWCA가 기독교적 신앙관에 머물지 않고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정의, 평화의 세상을 건설함’의 내용이 포함된 조직의 목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계YWCA라는 기반은 한국YWCA 창립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조건임과 동시에 세계기독교 학생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특히 초창기 역사에서 일본YWCA의 지원과 영향, 그리고 이후 역사에 이어지는 미국YWCA의 영향은 국가 간 관계를 넘어서는 국제조직의 관계망의 영

8. 당시 고문으로 활동했던 아펜젤러씨는 세계YWCA의 유래와 사업 그리고 가맹의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알렸으며 회원들은 이에 가맹을 결의하였다(『한국YWCA 반백년사』, 1976).

9. 한국YWCA는 1922년 북경 청화대학에서 열린 WSCF 총회에 김활란, 김필레가 참여했고, 창립 2년만인 1924년에 WSCF에 가입하였다. WSCF 북경 총회의 모습은 김천배씨의 다음 글(김천배, 1986; 『광주YWCA 70년사』에서 재인용)에서 알 수 있다. “1907년 도쿄에서 열린 WSCF대회의 주요 관심사는 ‘아시아의 전도’였다. 아시아의 크리스찬 학생들은 “20세기를 동양인의 선교세기로 만들자”, “예수를 아시아의 왕으로 삼자”고 기업을 토하였다. 1922년 북경대회에서도 여전히 전도가 중요시되었으나 ‘전도’의 개념이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을 위한 헌신이 더욱 강조 되었다. 또한 북경대회의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위기집단’(crisis group)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온 대표들을 대화하게 한 것이다. 즉 인도인과 영국인, 필리핀인과 미국인,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소집단을 형성하여 수차에 걸쳐 ‘솔직한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기반

“YWCA 역사를 살살이 뒤져보아도 한국의 경우처럼 자기나라 스스로 그 여성들의 손으로 조직을 갖고 창립을 서둘러서 제각금 스스로 직책을 맡아보고 있는 일이 없었다.” (김활란, 1965:130).

초창기 기독교여성운동은 항일 민족운동의 뿌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 혁신자들에 의해 평양 송의여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송죽회, 3·1운동 이후 대규모 여성애국 단체인 대한 애국부인회, 1930년 김활란이 중심이 된 근우회 등이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서고 각 여성단체들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상해 임시정부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기독교여성운동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뿌리뽑고 새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폐풍을 금지하는 운동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신은 애국심과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유대감으로 뭉쳐져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공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한 YWCA의 여성운동은 민족운동으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초기의 한국기독교는 민족주의적 유형으로 민족해방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이해했다(노치준, 1981). 이러한 기반 하에 기독교 여성운동은 남녀가 동등해지는 것과 민족해방에 기여하려는 양태로 나타났다(오숙희, 1988). 초기 여성단체들이 교육운동과 농촌운동에 중점을 둔 것은 민족운동의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나타난 애국여성들의 현대적 단체 활동의 저력과 전통은 19세기 말 개화기 자극받은 소수 선각자 부인들이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여성교육과 애국운동을 뒷받침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성들의 개화의식은 외세 위협 아래 주권을 빼앗긴 국가위기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런 여성들의 의식은 민족자주와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정신으로, 남성지배를 벗어나 신교육을 통해 개발되었고 구국운동에 이바지하려는 자의식과 민족의식에서 비롯되었다(『한국YWCA 반백년사』, 1976:2).

한국YWCA의 창설에는 당시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민족주의에 기반한 여성 운동에 대한 요구가 그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교회 여성의 수는 증가했으나, 복음주의적 선교정책과 기독교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교회 여성들의 활동이 교회 내에만 머무르면서 전도활동에 매진하였고, 이러한 복음주의적 선교활동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박순경, 1983).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YWCA가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을 표방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YWCA는 문맹퇴치, 생활개선, 공창폐지운동 등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신은 국제기구인 세계YWCA에 독립적인 위치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여성들의 자주적 힘에 의해 기반을 다진 조선 YWCA는 1923년에 열린 제2회 총회에서 세계 YWCA에 가입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고, 1924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YWCA 실행위원회에서 조선 YWCA는 개척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되었다. 조선 YWCA는 비록 정회원은 아니었지만 창립 후 얼마 되지 않아 국제적인 조직과 연관을 맺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국제여성운동의 선구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독교 여성운동의 특성과 한계

여성운동으로서 한국YWCA 창립의 특성은 국제적인 훈련을 받은 지식인 여성들에 의해 기독교적 신앙관에 입각한 여성관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운동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이후에도 한국YWCA 정체성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YWCA가 지식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은 YWCA의 성격을 앞으로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되었다. YWCA는 정치적으로 온건 중립을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또 한편 YWCA가 중산층 여성운동으로서 가지는 한계도 바로 이 구성원의 특성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YWCA의 설립자들은 모두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1926년 한국YWCA가 세계YWCA에 정회원국으로 가맹을 신청하였으나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YWCA 헌장 3조에 복음주의의 입교인으로 정회원 자격을 못 박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볼 때 초창기 YWCA 참여자들이 보수적인 신앙형태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계YWCA는 어떤 교파의 기독교인에게든지 회원자격을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YWCA에 대해 헌장개정을 요청하였고 1928년 총회에서 회원자격을 모든 기독교인으로 한다는 헌장을 개정한 후에 1930년에 세계YWCA에서 정회원국으로 가맹이 되었다(『한국YWCA 반백년사』, 1976:41).

당시의 여성단체들의 특성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적 여성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일반 여성단체들이 여성해방문제에 직접적이고 집중적 관심을 가진 반면에 기독교 여성단체들은 간접적으로 여성해방 문제보다 활동의 우위를 신앙에 두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두 단체 간에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황신덕은 YWCA를 “부인해방이라는 간판 없이 부인 계몽운동에 공이 많으며... 전후에 상당히 많은 지회를 가진 학생청년회와 시 청년회의 사업은 결국 여성해방운동의 기초공사를 하여 왔다.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은 물론이나 그 순서에 있어서 여자에게 문자를 가르치며 지식을 보급시키지 않을 수 없는 조선의 특수사정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이우정, 1985). 즉, 여성해방의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현실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 활동인 계몽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역할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YWCA가 근우회의 설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다른 여성단체들을 수용한 것은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YWCA가 여성운동을 표방하고 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운동체로 존재했던 것은 민족주의적 의식과 세계YWCA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창립자들은 세계조직운동 경험에 의해 다양하게 결성되는 여성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큰 힘으로 전 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합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구미에서 이미 시작한 YWCA와 같은 조직과 활동이 이상적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YWCA운동은 또 하나의 여성단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여성운동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될 수 있었다.

3.

한국의 사회 변동과 YWCA운동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한국교회의 교파 간 갈등과 '근본주의 신앙'의 확산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여성운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YWCA는 기독교인의 사회 변혁적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실천하는 존재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양적으로 확대될 때 한국YWCA가 조직을 함께 확대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자기실현과 민주적 조직 경험, 그리고 여성 대중의 참여를 통한 지역운동을 실천하는 여성주의적 연대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한국YWCA는 기독교를 통해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실천적 이념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와 교회의 성장 이면에 존재해 온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수행해왔다. 구체적으로 한국YWCA는 초기에 기독교 여성단체의 연합체로서 창립의 기반을 가졌고, 1953년부터 가족법 개정과 가사재판소 설치를 주장하며 8개 단체를 연합한 여성연합을 결성하여 '여성단체의 민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가족법의 일부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YWCA는 1970년 당시 근로여성들의 노동착취에 대항하여 근로여성의 복지향상과 인권문제를 주요한 운동 방향으로 설정하여 남영나일론과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인권운동 차원에서 소비자운동을 시작했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분과와 함께 가장 진보적인 여성운동체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가 급속한 민주화의 변화를 겪을 때 한국YWCA는 비정치권력화의 입장에서 정치적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한국YWCA의 설립 정신인 철저한 복음주의적 신앙은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했고, 약자들을 보살피는 현장에 존재해왔다. 복음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에큐메니칼의 건강한 보수성은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힘으로 작동할 때 역사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시대적 조류에 거리를 두고 참여하되,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이 한국YWCA가 초창기부터 지향했던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이다.

시기	기회구조의 변화	운동지형의 변화	한국YWCA
1922-1945	일제 식민지 농촌중심의 반봉건체제 유지 일제로부터 탄압(문화정치)	독립운동 기독교 계열의 여성운동과 사회주의권 여성운동 등장 일제 말기 대부분의 운동이 일본에 종속되거나 해체됨	독립국 지위로 창립 초기여성주의와 기독교 민족주의의 결합 애국계몽운동과 여성리더십 배양 일제말기 일제에 종속됨
1946-1972	식민지 국가의 안보국가로의 전환 반공주의적 사회재편 사회운동 공간의 확장 사회운동의 등장	좌우익의 대립, 여성조직들의 관변단체화 일체의 저항적 사회운동의 탄압과 공식적 영역으로부터의 소멸 여성단체들의 탈정치적, 비정치적 존립	좌, 우의 대립 속에서 비정치권력 지향의 여성단체로 존재 기독교 기반의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정체성 확립 전문적 리더십 양성의 체계구축
1973-1985	권위주의적 개발 동원체제 균열, 위기 저항적 사회운동의 심화 합법적 운동기구로 기독교 진영 세력화	권위주의국가에 종속적인 관변단체와 70.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과 '진보적' 여성운동의 등장	인간화 프레임으로 여성운동 정체성 분화 기독교사회운동진영과 결합 지역운동의 분화
1986년 이후	개발독재체제의 변형과 민주주의적 재편 제도정치와 재야운동의 분리 시민운동의 출현과 분화	관변단체와 탈정치화된 여성단체의 자율성 확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영역과 비제도영역에서 영향력 증대 급진적 여성운동의 등장	정체성 혼란기 시민운동의 전 영역으로 이슈 조직의 양적 확대 사회서비스영역의 위탁운영 확대 운동의 제도화

〈표1〉 한국사회의 변동과정과 YWCA 정체성 변화

초기 역사 중 김활란의 친일적 행각과 한국YWCA가 일본에 종속되었던 것 등은 한국YWCA가 고정적인 정체성을 고수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나, 진정한 복음주의적 보수성을 버린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4.

역사에서 나타난 한국YWCA운동의 특징과 의미

한국YWCA운동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고증이며, 이후로도 기독교 여성운동이 한국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견

인해야 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운동의 역사에서 한국YWCA가 적극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는 매 시기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선 ‘행위자’로서 존재해왔다. 이것은 한국YWCA가 초기부터 설정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이었다. 기독교적 실천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며, 신앙을 현실 세계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실천^{praxis}은 이론을 적용하는 단순한 실행^{practice}을 넘어서 비판적 성찰을 매개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하는 실천’의 개념이며,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실천의 핵심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YWCA의 정체성을 필자는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로 규정하고자 한다.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새로운 이념적 지형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주의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다.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에서 운동조직들의 활동을 이론과 실천의 양분론으로 설명하는 것과 진보, 보수의 이념적 지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한국YWCA운동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론과 실천이 상호 교섭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YWCA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YWCA운동은 철저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기초로 하며, 성육신의 신앙관을 기반으로 세상과 결합된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 목적문에 나타난 ‘평등’ 사상과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의 지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활동한 리더십의 활동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한국YWCA운동에서 나타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이념과 실천이 분리되는 이원론에 대한 반대이며, 이념에 의해 운동이 조직되거나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현실 세계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상호결합을 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기독교적 실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는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대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의 양분화된 이념적 지형의 한 쪽에 포함되기 보다는 그 어느 입장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입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정체성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넷째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타자화된 여성들의 공고한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내적으로는 강한 결속력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한국YWCA운동에서 보여준 조직과 리더십의 특징은 집합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팀 워크와 합의를 중시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공고한 연대의식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조직적 특성은 한국YWCA가 변화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기회구조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로, 한국YWCA가 진행해 온 여성의 계몽, 농촌운동, 인권운동, 지역운동, 직업개발 등은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한 ‘돌봄 정의’의 실현이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우선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정의운동과 구별되는 한국YWCA의 돌봄 정의의 운동은 시대의 약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돌봄 윤리’의 여성주의와 맥이 연결되어 있다.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돌보는 능력이 포함되지 않는 정의는 불완전하다. ‘돌봄’을 공적 가치로 인정하고자 지속한 한국YWCA의 운동은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가 지향해 온 기독교적 실천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로, 한국YWCA 역사에서 초기의 설립자를 비롯하여 박에스터, 조아라 등의 선배 리더십이 보여준 모습은 보수적 신앙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조직된 힘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YWCA가 부패하지 않고 역사를 이어온 바탕도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조직적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YWCA가 추구해 온 자원조직으로서의 ‘비정치 권력화’의 담론은 정치권력과 밀착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시민운동의 본질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민운동의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분단극복의 과제는 여성운동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특히 기독교 여성운동체로서 한국YWCA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

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분단적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한국교회의 분열과 근본주의적 신앙의 확대는 한국교회가 국가를 초월한 종교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어 이념 논쟁에 매몰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초기 여성운동의 이념에서 보여준 이념을 넘어선 신앙의 결속이며, 여성주의적 공동체의 원리이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과, 통일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한국의 기독교 여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5. 맺으며

한국YWCA는 지난 90여 년의 역사를 현장 속에서 지켜왔다. 한국YWCA의 역사는 '실천적 운동'의 역사였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특수한 삶의 조건과 의식은 기존의 일반적 정의론이 규정하는 자율과 권리의 독립적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정의의 개념이 아닌 타자로서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포함하는 돌봄의 가치를 기반한 정의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돌봄의 가치는 여성주의만의 지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성'에 가치를 둔 개념으로 보며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한국YWCA가 견지해 온 '실천적 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약자들과의 상호관계를 맺으며 '연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왔으며, 연대 공동체 안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정의와 평화, 생명의 운동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러한 한국YWCA의 실천성은 초기의 설립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보수화된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이 여성교회의 교회 중심 활동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개방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인 기독교 여성들의 공고한 연대solidarity의 기초가 되었고, 전 지역과 세대, 그리고 모든

계층의 여성들의 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한국YWCA가 가진 독특한 지점이다.

한 세기에 가까운 한국YWCA운동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한국의 사회운동 역사에는 현실에 존재하나 연구로 고증되지 못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와 같은 역사친화적이고 구체적인 유형화 시도가 필요하며, 특히 여성운동과 같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 여성주의에 대한 '사회사적 탐구'는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다양한 현장 연구를 통해 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는 역동성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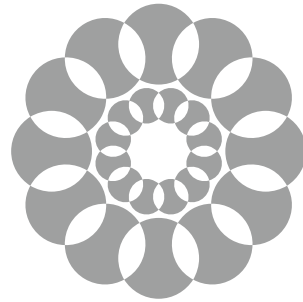
대한YWCA 연합회	『월간 한국YWCA』(1972. 1- 2002. 12)
대한YWCA 연합회	『프로그램 중점 자료집』(1976-1979)
대한YWCA 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철』(1947-2010)
대한YWCA 연합회	『연합위원회 자료집』(1947-2012)
대한YWCA 연합회	『전국대회 보고서』 제1회-제34회.
서울YMCA, 1993	『서울YMCA 운동사(1903-1993)』
서울YWCA, 1992	『서울YWCA 50년 그리고 20년』
서울YWCA, 2002	『서울YWCA 80년』
강남순, 1998	『페미니즘과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강선미, 2003	『조선파견 여성교사와 (기독교)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학위논문.
거다 러너, 김인성 역, 1993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중세에서 1870년까지』, 평민사.
김현자, 2003	『풍요한 삶』, 한국YWCA연합회.
민경배, 1972	『한국기독교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박상중 편저, 1992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기독교서회.
박순경, 1997	『통일신학의 미래』, 세계질.
박용욱, 1985	기독교와 여성의 개화, 『한국기독교여성백년사』,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편, 대한기독교출판사.
송건호, 김천배, 1986	『한국YMCA 운동사(1895-1985)』, 대한YMCA연맹.
이승희, 1991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화백년사편찬위원회, 1994	『이화 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효재, 1985	한국교회여성 100년사: 개관과 전망, 『한국기독교여성백년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편, 대한기독교출판사.
이효재, 1998	한국여성 운동사 100년, 『동덕 여성연구』3, 동덕여자대학교.
주선애, 1984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 백년의 회고, 『기독교사상』 318, 대한기독교서회.
천하숙, 2000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해안.
한국YWCA 연합회, 2006	한국YWCA 8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80년사』.
허라금, 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22(1), 한국여성학회.
홍승표, 2010	일본 YWCA의 한일 기독교 관계사적 의미- 한국YWCA의 초기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한-일YWCA협의회 주제발표자료, 한국YWCA연합회.

글을 쓴 유성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한국YWCA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대학생Y 회원으로 시작하여 1991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청소년부 간사로 일했으며 2004년 연합회 사무총장이 된 후 현재 세 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지다

- 평화의 여정에 함께 하는 YWCA 여성들

명진숙
한국YWCA연합회 지역운동국 국장



1. 평화와 통일을 향한 YWCA의 현장

얼마 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 긴 세월 동안 생사를 알지 못했던 남과 북의 가족들이 쏟아내는 눈물과 사연을 접하며 가슴이 아련해지는 사람들이 적잖을 것 같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역시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었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가느라, 친척들을 만나느라 북적이는 다른 집들이 어릴 적 내게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떠나왔다는 사실에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셨다. 그렇게 아버지는 통일될 그날을, 가족들이 만날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픔을 안고 돌아가셨다.

2013년은 남과 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 많은 사람들이 아

픔의 긴 세월을 털어버리기 위해 다른 변화를 꿈꾸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남과 북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 때가 되었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사실 싸움도 힘들지만, 그 싸움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남과 북이 긴장과 갈등상태로 들어간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는 그의 저서인 『한반도는 아프다』에서 냉전이 열전에 견주어 비용과 고통이 줄어드는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냉전과 열전 속으로 몰아갔던 강대국들이 서로 화해국면으로 들어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대결하며 싸우려 하는 것에 억울한 아픔이 있다고 지적한다.

YWCA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왔다. 사실 분단의 아픈 역사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다. ‘통일 대박’을 거론하는 요즘, 정부차원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YWCA는 1980년대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회원들의 정오 기도운동과 함께 북한YWCA를 재건하기 위한 모금운동의 싹을 틔웠다. 그리고 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바로알기모임’과 더불어 평화통일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전쟁놀이 장난감 추방운동과 더불어 평화교육 교재를 만들어 어린이 평화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YWCA의 활동은 갈등과 긴장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여성들의 의지였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천하는 현장이 되었다.

2. 돌봄과 살림의 마음으로 하나 된 여성들의 만남

지난해 8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여성들이 중국 연변에서 만났다. ‘길 위의 평화학

교-한국·연변·퀸즈Y 여성들이 함께 하는 백두산 평화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3차 한민족여성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와 미래'를 주제로, 3개국(한국, 중국, 미국) 72명이 평화운동에 대해 성찰하면서 여성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연대의 시작을 알린 한민족여성대회가 처음으로 열린 것은 1994년, 민족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여성들은 한마음으로 만났다. 정치, 사상, 이념의 차이는 만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분단으로, 폭력으로 힘겹고 아픔 가득한 세상에서 여성들은 돌봄의 마음으로, 살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YWCA와 연변대 부녀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미래의 세계와 여성문화를 위한 모임'에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47명의 여성들이 참가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차이를 줄여나갔다.

중국 연변대회에 이어 제2차 한민족여성대회는 1996년 4월, 미국에서 열렸다. 뉴욕에서 열린 2차 대회에는 '세계평화와 여성연대'를 주제로, 6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미국), 총 8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연대를 구체화하고 화해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모임과 더불어 북한을 바로 아는 노력이 우선될 것과 통일을 위한 저축과 자녀에게 통일 교육을 시키는 것, 그리고 65세 이상의 이산가족 방문을 여성들의 힘으로 실천해보자는 등 여성들의 평화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대립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민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있을 때 화해가 가능하다는 여성들의 마음은 미래세대인 자녀에게 갈등이 아닌 평화를 둘러싼 삶의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민족여성대회는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3. 오랜만의 만남, 식지 않는 하나님나라의 소명

드디어 제3차 한민족여성대회가 열린 2013년, 오랜 공백으로 인한 아쉬움을 덜기 위해서일까? 참가자들의 기대는 떠나기 전 준비모임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났다. 행사 전 준비모임을 가졌다. 첫 번째 준비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나누고 각각의 역할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준비모임은 8·15기념 한반도평화통일염원 기도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바로 보는 통일, 바로 보살피는 평화'를 주제로 한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의 평화통일 특강과 더불어 YWCA의 소명을 인식하는 자리를 가졌다.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간의 여정으로, 연변과 도문 등에서 평화기행이 진행되었다. 연변공항에는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리혜숙 회장과 이사, 그리고 연변에 먼저 도착한 퀸즈Y의 홍인숙 고문총무와 서희전 이사가 마중을 나왔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라는 '만남'의 노래말처럼, 소망의 강도만큼 반가움과 정겨움의 깊이는 행사기간 동안 더해갔다. 첫째 날인 19일 저녁, 개회식 및 환영의 밤이 열렸다. 각 지역별로 준비한 여성평화통일 개사곡과 율동 등으로 흥이 넘치는 만남과 소개가 이어졌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회원들은 한복을 곱게 입고 동동타령을 멋지게 불렀다.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각 공연마다 개성이 넘쳤고 웃음이 뒤를 이었다. 처음으로 만났다는 어색함은 환영의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열려져갔다.

둘째 날인 20일 아침부터 '여성이 만드는 평화와 미래'를 주제로 행사가 열렸다. '남북평화통일을 향한 한국YWCA 행진'을 주제로 강교자 증경회장(한국YWCA연합회)의 발제가 있었다. 분단의 아픈 현실 속에서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의 사용조차 오해나 위협을 받았던 1980년대부터 시작된 YWCA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이해를 한국교회의 신학 흐름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가운데, Y평화통일운동은 왜,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가?, 평화통일운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Y평화통일운동은 어떻게 지속되어야 하며 나의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Y평화통일운동은 나뉜 것을 하나로 합하는 화해와 일치 운동이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생명사랑운동이며, 기독여성성에 입각하여 나눔과 돌봄 가치를 실천하는 평화운동, 곧 하나님나라운동으로 하나님의 딸들인 Y회원들

1

1. 1994년 제1차 한민족여성대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만난 여성들. (중국 연변)



의 마땅한 책임이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1차, 2차 한민족여성모임에 계속 참가한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박해나 교수(연변과학기술대학)는 1994년 제1회 한민족여성모임에 참여하며 연변Y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족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어, 예절교육, 노래학교 등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봉사정신을 이끌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연변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흩어진 가정들의 상처와 치유를 위한 가정평화사역, 한국으로 취업하는 여성들을 위한 준비교육반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명선 위원(한국YWCA연합회 평화나눔팀)은 지난 1차, 2차 대회를 기억하며 3차 대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YWCA 차원에서 정오 기도회와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평화통일 활동을 하는 가운데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으로서의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하면서 북한사람도 함께하는 행사를 위해 장소를 연변으로 정했으나 행사 직전 북한의 참석이 불발에 그치게 되었지만, YWCA 회원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여성단체들도 다수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첫 만남에서 공산권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했지만 행사를 함께 하며 서로를 안으면서 뜨거운 눈물로 확인한 여성간의 연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하였다. 사실 제1차 한민족여성대회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에 보

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위원은 이번 모임을 통해 한국과 연변, 미국 그 외 각지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준비하며 자매애를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홍인숙 고문총무(뉴욕퀸즈YWCA)는 한민족여성대회를 이어가며, 뉴욕퀸즈 Y에서 진행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특히 1997년에 북한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김영옥, 신영옥, 정명화, 정명훈, 한동일 등 기라성같은 연주자들이 참여해 Y평화통일운동에 힘을 더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전화선 개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995년에 전화선을 개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그 외에도 북한 육아원(고아원) 등에 담요나 양말을 보내는 등 그동안 진행한 퀸즈Y의 활동을 알렸다.

4.

길 위에서 계속되는 평화를 향한 기원

세미나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백두산으로 향했다. 여정을 함께 하며 서로간의 이해와 평화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길 위의 평화학교'가 버스 안에서 열렸다. 하루를 열고 닫는 시간과 버스에서의 긴 이동시간에 각 차시별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연합회 평화나눔팀의 배영자, 윤명선 위원이 교사를 맡았다. 두 대의 버스에 탑승한 일행은 만남이라는 노래로 1교시를 연 후, 2교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주제로, 3교시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4교시에서는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버스 안의 짝꿍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적인 단어 사용과 의식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참가자들은 보이지 않는 글과 들리지 않는 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녹녹치 않았다. 포장된 도로를 달린다고는 하지만 흔들리는 버스에서 장시간을 앉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기행을 담당하신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백두산은 정말 큰 산이었다. 거대한 산맥 앞에서 왜 백두산이 '민족의 영산'인

지 느낄 수 있었다. 산에 다가갈수록 그 느낌은 어마어마했다.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엄청난 꼬부랑길이었다. 12인승 버스에 타서 짐짝처럼 이리로, 저리로 쏠리며 가기를 10여 분, 천지에 도착했다. 천지를 올라가는 방법에는 북한쪽 코스와 중국쪽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중국쪽 길을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으로, 중국에서는 장백산으로 불리는 그 곳, 반으로 갈라진 한반도처럼 천지 또한 나뉜 채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다. 100번 산을 올라도 두 번을 볼까 말까 하다는 천지를 우리는 처음인데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푸르다 못해 초록빛인 천지에서 우리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울림과 감격에 마음이 울렁거렸다.

다음날엔 도문으로 여정을 향했다. 두만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본 북한의 전경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다가왔다. 강 건너편이 바로 북한 땅으로, 북한 군인이 가까이 보였다. 처음엔 북한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수영을 하며 놀이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인이었다. 제대로 영향을 섭취하지 못해 발육에 어려움이 있고, 왜소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계속되는 재해와 흉년으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와 비슷한 정도의 기아 상태이다.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의 북한 땅, 한여름임에도 황폐화되어 누렇게 되어버린 그곳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한민족여성대회와 함께 한 평화기행 4일째, 우리는 폐막식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로 다음과 같은 액션플랜을 결의하였다.

1. YWCA의 평화교육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위한 활동
 - : '길 위의 평화학교'를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기회 제공
2. 통일의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3. 연변 조선족 지역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 연변지역 내 가정문제 상담 및 가족구성원 교육 기회 제공
 - : 한국에 있는 조선족 여성을 위한 상담 지원
4. 한민족여성대회 개최 정례화 및 북한 여성 교류 방안 모색

5. 다시 현장으로, 또 다른 아픔의 현장으로

오랜만의 만남이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은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개념과 문화적인 이해 등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본다면 소중한 경험과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방문한 연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아픔과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한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변의 주도인 연길시에서는 조선족 부부의 이혼과 이들 자녀의 탈선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자치주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변자치구 조선족 인구는 1995년 86만 명에서 2009년 80만 명으로 7%가 줄었고, 출산율 또한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조선족 자치주 건립 초기인 1953년 전체의 70.5%를 차지했던 조선족 인구 비율은 지금은 36.7%로 감소했다. 소수민족 비율이 30%를 밑돌면 자치주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조선족 인구 감소로 소학교(초등학교)가 문을 닫아 우리글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도 늘어나고 있다. 자치구 조선족 학교 가운데 80%가 문을 닫고 있고,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조선족 학교는 거의 없다. 게다가 경제력이 생긴 조선족 중에는 아이를 한족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에는 우리말을 모르는 경우도 증가하는 현실이다.

최근 연변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이산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연변의 농촌으로 갈수록 방임되는 아동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연길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에 참석하는 아이들 중 다수가 부모와 생이별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 또한 많다.

1
2

1. 제3차 한민족여성대회를 겸하여 한국연변·퀸즈Y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 기행.

2. 압록강 너머 보이는 땅이 바로 북녘땅이다. 백두산 평화기행중 도문을 방문한 참가자들.



YWCA는 정희경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의 후원을 받아 연변 시내에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여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고, 연합회는 물론 회원YWCA 차원에서 관련한 활동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합회에서 실무자를 파견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연변지역에서 필요한 활동과 협력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연변의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등 또 다른 아픔이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6. 아픔의 역사에 함께하는 YWCA

평화학자 갈통은 평화란 전쟁을 반대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폭력을 반대하고 없애는 개념으로 '적극적인 평화'를 제시한다. 즉 물리적 폭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으로서의 폭력, 빈곤과 전쟁 등 사회구조나 체제 속에서 나타난 폭력, 폭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상징과 문화를 극복한 상태를 '평화'로 명명한다. 결국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 구현된 행복한 상태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바로 보는 평화의 상태라고 한다면, YWCA가 만들어가는 평화운동은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과 실천을 넘어선 보다 더 새롭고 확대된 현장을 필요로 한다.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여성간의 연대는 화해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3월, 퀸즈YWCA의 홍인숙 고문총무와 서희전 명예이사가 다시 연변으로 갔다. 지난 3차 한민족여성대회 이후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새롭게 모색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미국에서 연변으로 떠나면 여정을 거침없이 떠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심정처럼 강렬한 믿음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세상의 잇속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현실적인 삶의 방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선택을 보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하려는 YWCA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글을 쓴 명진숙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여성민우회와 여성재단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왔다. 현재 한국YWCA연합회 지역운동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창간호 발행 후기

때론 설레고 때론 초조했지만, 오랜 기다림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은 더뎠고, 제 길을 찾기까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또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 하는 열망과 그 힘을 믿었기에 결국 『여·세』는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여·세』는 그저 지금 여기에서 '함께함의 의미'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작은 공명을 일으켜, 죽음과 죽임의 현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생명살림을 향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창간호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며 살고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 즉각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창간호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집 대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삶, 이웃-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물-을 되돌아보는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특집 총론 최만자의 글은 여성들이 소유적 삶을 버리고 서로 연민을 통해 연대성을 회복하고, 마침내 공감하며 구체적 삶을 살아내는 지혜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집 첫 번째 부분에서 조주은은 생명해체의 구체적인 예로서 가족 공동체의 위기를 다루고, 구미정은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권수현은 성형의 현실을 신자유주의적 여성 차별, 배제, 경쟁의 가속화로 규정하고, 김명희는 난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성의 회복을 역설하며, 백미순은 성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 대해 여성의 삶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촉발된 방사능 오염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민감시활동을 제안하는 김혜정의 글과, 공생공락을 위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즉 희망과 가난을 향한 상상력을 제안하는 박경미의 글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YWCA가 여성공동체운동 조직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왔으며 또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밀하지만 강력한 초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살자! 함께 나아가자! 이 여정에 동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김기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
여성신학자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사)한국YWCA연합회